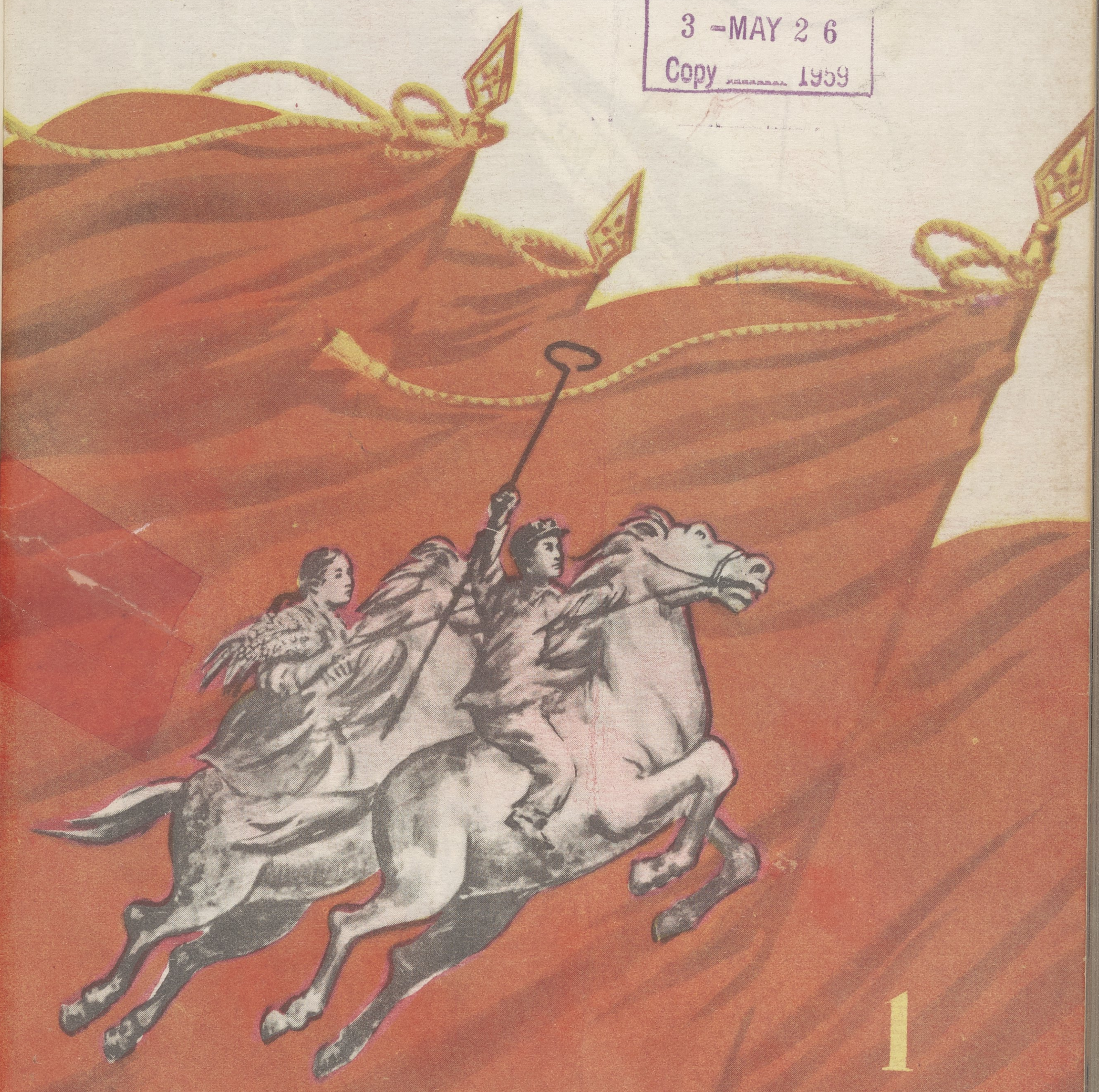
Life of Youth

91

청년생활



1

1959

제1차 5개년 계획을
금년내에 초과 완수하자!



(본지 40페지를 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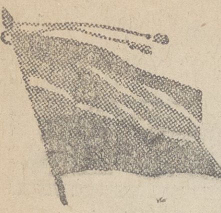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1
(112)
1959

편집위원 리 홍종(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1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1월 10일 발행
(값 30 원 ㄱ—30023) 100,000부 발행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하는 근위대가 되자!

민청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 봉 운

조선 청년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우리 나라 발전에서 력사적 전변이 일어난 1958년을 보내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에 대한 광활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새해에 들어섰다. 신년 축하연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에 고무된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충천하고 있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을 금년중으로 완수하기 위한 로력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혁명적 열의 고조된 환경에서 민주청년 동맹은 1월 17일로서 자기의 창건 13주년을 맞이한다. 민청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하에 영광에 찬 길을 걸어왔다. 민청이 걸어온 전투적 행로는 조선 로동당에 대한 청년들의 수정같이 맑은 충성심과 혁명 승리를 위한 헌신적 복무의 기록으로 빛나고 있다.

민청은 평화적 건설 시기와 미제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물론하고 당이 제기하는 정책을 절대 지지 옹호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청년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 당의 전투적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민청은 또한 각계 각층의 청년들을 단결시키고 맑스—레닌주의로 교양하여 수십만의 선진적 근로청년들을 당 대렬에 보내였으며 수많은 일'군들을 양성하여 당의 후비대로서의 역할을 믿음직하게 수행하였다.

오늘 민청은 170 여만의 청년들을 망라하고 당의 어떠한 위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전투적 부대로 장성 강화되였다.

민청의 창건과 발전 및 그의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실로 당의 지도는 민청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사업 성과의 담보이다. 민청과 조선 청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당이 주는 어떤 위임이라도 만난을 극복 타개하면서 어김 없이 완수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당의 령도하에 이미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선진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적 준비를 갖추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혁명적 과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적극 지지 옹호하며 전체 인민들이 그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야 한다. 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인 민청의 가장 숭고한 의무는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 정책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고 그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당과 인민을 백전 백승에로 령도하는 조선 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이다. 우리 인민은 8•15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혁명 수행 과정에서 국제 국내적으로 여러번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한 온갖 계급적 원쑤들이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 날뛰였으며 각종 반당 종파분자들이 우리 혁명 수행을 방해하여 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 중앙 위원회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어려운 시련을 훌륭히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인민이 세계 최강을 호언하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전쟁의 페허우에서 그렇게 단 기간에 사회주의 승리를 달성한 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세계 지도상에서 빛을 잃은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가 어떻게 오늘과 같이 동방에 태산 같이 솟은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개변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전 당과 인민들은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단결되여 있다.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당의 모든 정책들을 견결히 실천하고 있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와 전복된 착취 계급들과 반혁명 분자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해쳐 보려고 발광적 책동을 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충실성은 곧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모든 힘을 다하여 보위하며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으로 어떠한 적대 분자, 반당 종파 분자라도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털끝만치도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의무로, 가장 영예로운 의무로 삼아야 한다.

당의 충직한 전사가 되며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근위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그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그의 사상 체계와 혁명정신, 그의 사업 방법들을 계승하여 그들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완성을 위한 화려하고 웅장한 설계도를 펼치고 부단 혁명, 부단 혁신에로 우리 인민을 부르고 있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전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과 전체 청년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모든 부문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을 금년 중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계획을 매일, 매달, 매분기 마다 지표별로 완수하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특히 당이 제기한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혁명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결속한 조선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 뿐이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당의 기치하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더욱 용감하게 전진할 것이다.

옥중의 불꽃

—공산주의 투사 권 영벽 동지—

리 종 준

권 영벽 동지는 1909년 함북 경성군 룡성면 근동리 빈농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1세 되는 해 봄 간도성 연길현에 이주하였다. 어려서부터 혁명적 영향을 받으며 자란 그는 농촌 사립 학교 교원 시대에 애국적 문화 계몽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1932년 그는 연길현 싼도만에서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에 들어 갔다. 권 영벽 동지는 그후 유격 근거지 내 인민 혁명 정부 군사부에서 사업했다.

1934년에는 연길현 옹구 당 서기 공작을 하였으며 근거지를 싼도만에서 처창즈로 옮기는 곤난한 시기에는 그 이동을 책임진 한 사람이였다. 1935년 봄부터 조선 인민 혁명군 독립사 2련대에서 당 지부 서기로 공작하며 남만 원정과 북만 원정에 참가하였다.

1937년 6차 사부 조직 과장으로 임명된 그는 조국 광복회 장백현 공작 위원회 책임자로, 그후에는 당 동만 특위 장백현 위원회 책임자로 적 통치 구역인 17도구에 나와 공작하면서 장백현과 그 대안 일대에서 당 조직과 조국 광복회 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던 중 그해 10월 그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여 갖은 악형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의 래일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한 그는 1945년 3월 10일 서대문 감옥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추호도 굴하지 않고 고결한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싸웠다.

9년이란 옥중의 나날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간고한 시기였다.

여기에 실은 한편의 글은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이며 공산주의 투사인 권 영벽 동지의 숭고한 혁명 정신의 일모를 이야기하여 준다.

복도에 길게 펴놓은 밀짚 까래 우로 조심스러히 다니며 감방 안의 동정을 살피던 간수놈의 발'자국 소리도 뜸 해졌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지친 몸에 곤히 잠든 동지들이 가끔 신음 소리를 지른다.

심문을 받느라고 늦게 돌아온 권 영벽 동지는 솜갈이 된 몸을 벽에 기댔으나 얼른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시련이 닥쳐 올 것인가!

벽에 기댔던 몸을 옆으로 돌리며 그는

《더러운 자식들!》하고 내 배알듯이 말했다. 허리를 새우처럼 꼭 까부리고 자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어떻게 되였어요?》

둥굴한 얼굴에 부리 부리한 눈이 성칼스러워 보이나 보기와는 다른 은근한 목소리다.

《더러운 자식들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한단 말이오… 천만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될걸.》 권 영벽 동지는 말을 이었다.

《박동무! 내 말을 들어 보오, 자식들이 망할 날이 머지 않았소, 틀림 없소, 그러니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하오, 나는 다시 세상에 나갈 것 같지 않소, 놈들이 나를 살려두지 않을게요, 그러나 나는 조금도 겁나는 것이 없소, 이미 각오한지 오라니까.》

박 창복이는 묵묵히 권 영벽 동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다. 권 영벽 동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창복 동무는 꼭 우리의 뜻을 이어 사업해야 하오, 내가 요전에 말하지 않았소, 꼭 그대로 싸워야 하오, 구형이 끝난지 몇 달되니까 나에겐 오라지 않아 언도가 있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가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소, 뻔하지.》 잠시 말을 끊었던 권 영벽 동지는 움찍 일어나 벽에 걸린 세면 주머니를 벗겨 비누곽을 꺼냈다. 밤 중에 그것은 꺼내 무얼할가 하고 창복이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 보았다.

《이리 가까이 오우》 권 영벽 동지는 창복의 팔을 끌어 당기어 자기 옆에 바싹 붙어 앉게 했다.

《나는 동무와 헤여지게 될게요, 영원히 말이오, 그런데 동무에게 무얼 줄게 있어야지… 쓰던거라구 나무리지 말고 받아 두우.》

《아니 그걸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복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는새 높아졌다. 복도에서는 간수놈이 책상 우에다 침을 흘리며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었다.

《글쎄 념려말구 받소》

창복이가 받은 보라색 비누곽은 너무 오래 써서 뚜껑 한쪽 모서리가 깨진것을 흰 실로 꿰멘 것인데 그 안에는 바늘 끝으로 이런 글자를 새겨 놓았다.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라—권 영벽》

그것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드려다 보던 창복이는 비누곽을 쥔 손을 가슴에 대였다.

그리고 저으기 흥분한 목소리로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이 감방에 들어온 후 내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그는 비누곽을 웃저고리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자리에 누웠다.

× ×

권 영벽 동지가 혜산 경찰서에서 함흥 형무소로 온 것은 1938년 봄이였다. 그때에는 국경 지대의 산간에도 아지랑이가 끼고 겨우내 추위에 떨던 나무아지들이 파르스름한 눈을 내밀었다. 그러나 혜산 경찰서의 감방과 격금소 안은 야수들의 발광으로 서리찬 공기가 들어 찼다. 그렇지만 그속에서도 사람들은 조국의 봄을 몸가까이 느끼며 싸우고 있었다.

그곳에는 《혜산 사건》으로 장백현과 갑산에서 조국 광복회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에 참가한 조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지지하고 동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왔었다. 그 가운데는 세상에 태여나 아직 어머니의 젖 가슴 밖에



모르는 어린것도 있었다. 그동안 원쑤들은 권 영벽 동지에게서 빨찌산의 비밀을 알아내며 그를 굴복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종시 아무것도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원쑤놈들은 그를 포함한 190 여명의 동지들을 함흥 형무소로 보내게 되였던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날 아침이였다. 애국자들의 사지를 부러뜨리는 데 소문이 났고 그 공로로 경부까지 《출세》한 최 령이란 자가 개기름이 나도는 낯짝을 씰룩거리며 격금소로 어슬렁 어슬렁 들어왔다.

마당 안은 함흥 형무소로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놈은 맨 앞에 앉아 있는 권 영벽 동지를 아니꼬운 눈초리로 쏘아 보고 있었다. 그놈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를 좀 보자고 했다. 격금소 사무실에 들어간 권 영벽 동지는 원쑤와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그래 아직 깨달은 것이 없는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다.》

얼굴에 독이 오른 일본개는 본성을 나타내며 《뭐?…》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탕 쳤다.

《네 목숨은 우리 손아귀에 들어 있어, 사리를 잘 생각하여 말해라.》

《백번 물어도 딴 말이 없다.》

《아직도 너는 대일본 제국의 번영을 믿지 않는가?》

《그렇다! 믿지 않는다》

일본개는 미친듯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진리다.》 비수 같은 말은 그놈의 가슴을 쿡 찔렀다.

일본개는 그의 뺨을 후려 갈기고는 한참이나 씩씩거렸다.

《너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는가?》

《우리는 너희들 처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너는 용서할 수 없다. 엄중히 처단해야겠다.》

《마음대로 해라.》

악명 높은 이 일본개는 창자가 뒤틀린듯 미쳐 날뛰였다. 그러나 격검 몽둥이와 다이야, 피대, 장작개비가 수없이 없어지고 비행기 고문, 물총 고문, 손발톱을 참대침으로 찌르며 살을 지지는 고문, 매수 고문 등 별아별 짓을 다 해 보아도 비밀을 말하지 않고 《전향》할 것을 응하지 않은 그에게서 무엇을 알아 낼 수 있으랴! 원쑤들은 국경 연안의 여러 경찰서에서 이름 있는 고등계 형사를 다 끌어 왔으나 그의 투지를 꺾지 못했다.

애국자들을 송국할 때 혜산 거리의 교통을 차단한 원쑤들은 특별 수송 렬차를 준비하고 바곤마다에는 기관총을 걸어놓고 어마어마한 경계를 섰다.

이렇게하여 함흥 형무소 미결감 2동 15호에 권 영벽 동지는 갇히웠다.

감옥에 들어온 모든 동지들은 이 투사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했다.

감방 15호에는 1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혜산 사건》 외의 사상범들도 있었는데 박 창복도 그중의 한 사람이였다. 창복이는 함남에서 적색동지회 사건으로 1940년 여름에 감옥에 들어 왔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 젓가락을 꽂아도 서지않는 《6등밥》을 얼른 삼켜버리고는 슬그머니 돌아 앉았다. 그러면 권 영벽 동지는

《동무, 이걸 더 먹소, 나는 단련이 되여 괜찮소.》

하고 한쪽 귀퉁이를 먹다만 밥덩어리를 한사코 그의 손에 쥐어 주고야 말았다. 하루는 창복이가 감옥 《기률》을 위반하여 모진 고문 끝에 두팔을 쇠사슬로 얽매인 채 며칠을 보내게 되였다. 가득이나 가깝하던 몸이 팔까지 놀리지 못하니 징역 우에 또 징역을 하는 것이였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 때도 엎디여 핥아야만 했다.

권 영벽 동지는 창복이에게 매끼마다 식사를 시키고 뒤를 보이고 했다. 그리고 밤이면 그를 자기에게 기대여 눕게

하고 간수놈들이 졸 때쯤하여 마루 바닥에 끼워두었던 가는 쇠꼬챙이로 팔에 감긴 철쇄를 풀어주었다.

감방 안에서는 가끔 장난을 좋아하는 축들이 복도에서만 디려다보기 편리하게된 감시구를 잔등으로 막고 와당탕거리며 씨름을 했다. 이럴때에 간수놈이 뛰여와 누가 그랬는가 소리를 지르면 권 영벽 동지는 《내가 그랬소》하고 앞에 나선다.

그러면 대개는 주춤거리다 돌아가고 어떤 놈은 무슨 말인지 혼자 웅얼 웅얼 했다. 그놈들도 이 투사에 대하여서는 고립된 자기들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감옥 안의 《죄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한덩어리가 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권 영벽 동지를 알게된 후의 모든 일을 생각하며 창복이는 어느때쯤 잠이 들었는지 몰랐다. 잠시 눈을 붙였다 뜨니 벌써 아침이다.

복도에서는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간수놈이 출입문을 삐꺽 열더니

《110번!》 하고 권 영벽 동지를 불러냈다. 오늘은 《혜산 사건》 예심 공판이 끝나는 날인 것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창복이와 그외의 여러 사람들이 움쭉 일어나 그를 쳐다 보았다.

《내 형기에 대해서는 기대할게 없소, 그저 그렇게 아는 것이 틀림이 없소.》

출입문 어구에 갔을 때 권 영벽 동지는 침착한 어조로 동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검사가 구형할 때에 사형을 요구했던 것이다. 감방에 남은 사람들은 그가 돌아오면 어떻게 대하고 위로 할 것인가를 공론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루한 여름해도 저물고 사위에 어둠이 짙어갈 무렵 권 영벽 동지는 돌아왔다. 출입문이 열리자 모두 그의 얼굴을 쳐다 보았으나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사형을 언도 받았을 사람에게 무



슨 말부터 하겠는가…. 감방 안은 물을 끼얹은듯 조용했다.

그러나 권 영벽 동지의 얼굴은 아침에 나갈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감방의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그는 태연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다.

《어째 오늘 저녁에는 모두 이리 조용하오.》

그가 이렇게 말을 꺼내자 조용하던 감방에서는 차츰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들어오자 감방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젓갈을 쥐지 않았다.

동지들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자 먹기오, 어서.》

하며 아무러한 일도 없었든듯이 그들을 위해 자기가 먼저 젓갈을 쥐였다. 그리고 이윽하여 여러 동지들에게 조용히 말을 했다.

《동무들이 나 때문에 몹씨 걱정하는 것 같구만, 나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주먹으로 땅을 칠 사람이 아니오, 너무 상심하지들 마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태연하였다. 눈 앞에 죽음이 닥쳐온 사람같지 않게 정말 너무나도 태연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모두 그의 얼굴을 쳐다 보며 이와 같이 생각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을거요, 우리에게는 많은 동지들이, 어떤 자의 힘으로도 꺾지 못할 많은 동지들의 힘이 있지 않소, 며칠 안 있어 서대문으로 가게 되지만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오. 이 어두운 감방 안에도 머지않아 밝은 해'발이 비칠거요!》

《………》

감방 안의 동지들은 모두 가슴이 후더워졌다. 그리고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내렸다.

《우리에게도 좋은 세상이 올 것이요, 조선이 조선 사람의 것으로 되는 그날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 나가야 하오.》

동지들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가의 숭고한 모습을 보았다. 이날 저녁 감방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창복이는 그 보라색 비누곽에 씌여있는 글'발을 오래 오래 들여다보며 그것을 한자 한자 머리속 깊이 아로 새기였다.

감방안의 사람들은 그날 낮에 공판장에서 있은 일을 모두 알게 되였다.

× ×

어둑 컴컴한 함흥 지방 법원 특별 법정에는 장백현과 그 대안 일대에서 사업하던 많은 동지들이 앉아 있었다. 일제 침략자들은 그들을 감옥에서 말려죽이려고 4년, 5년 미결로 두었다가 그제사 《공판》을 한다는 것이였다.

원쑤들은 이미 꾸며 가지고 나온 상투적인 방법으로 권 영벽, 리 제순, 김 병일, 서 응진, 리 주홍, 송 태순, 김주, 지 태환 등 여러 동지들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했고 그외의 동지들에게는 5~6년으로부터 10년, 20년, 혹은 종신 금고형을 내렸다. 그들이 조국을 찾겠다는 《죄》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원쑤들의 검은 배속을 벌써 알고 있는터이라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재판장이란 놈이 관례에 따라 사형을 언도 받은 《피고측에서 발언 할 것이 없는가?》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앞줄에서 누가 불쑥 일어났다. 권 영벽 동지였다.

《내가 꼭 말할 것이 있다.》

장내의 시선이 일시에 그에게로 쏠리였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서 살지 못하고 만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늙은 부모와 어린 것을 거느리고 낯선 땅에 간 우리는 호미와 괭이로 땅을 일쿠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잘 살수 있으리라고 한 생각은 오산이였다.

등뼈가 부러지게 일해도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만 했고 갖은 천대와 학대 속에서 살아야 하였으니 그 이상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민족 반역자들 때문이다.》

《옳소!》

《옳소!》

공판장 안은 격분으로 들끓었다.

재판장놈은 손을 들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독기어린 눈으로 쏘아보자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 우리는 자기 조국을 찾기 위해 일어 섰다.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너희놈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손에 무고하게 죽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으냐? 조선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만주벌 넓은 곳 어디를 가도 조선 사람들의 피가 무젖지 않은 곳이 없다.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 사람이라면 아이고 어른이고, 《죄》가 있고 없고 닥치는대로 죽였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공산주의 사상은 빼앗을 수 없다.

우리 몇 사람을 사형하는 것으로 혁명의 불'길을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죽음은 그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할따름이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동지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 그의 말은 그들의 가슴을 후련히 하였고 어두운 감방 안에도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재판장놈은 련신 허리춤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보며 시계 바늘 돌아가기만 기다렸다. 그의 말이 원쑤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였건만 론박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규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놈들을 자라목 처럼 움츠러 들게 했다.

권 영벽 동지는 옥중의 역경에서 지칠대로 지쳤을 망정, 그리고 원쑤들의 배후에는 아세아의 넓은 땅을 강점하고 있는 침략의 《대군》이 있을 망정 원쑤들이 반드시 멸망하는 날이 머지 않다는 것과 자기의 신념의 정당성과 그것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불같은 말을 한 것이였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김 일성 원수의 전우로서 어두운 감방 속에서도 항일 빨찌산의 진군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의 량심의 웨침이며 심장의 영원한 웨침이였다.





농촌의 기술·문화 혁명과 민청 단체들의 전투적 과업

신년 벽두에 열린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력사적 승리를 총화하고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강령적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전망과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시켜 주며 그들의 무진장한 창조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오늘 농촌 경리 분야에서 우리의 기본 과업은 가까운 년간에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를 정치—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며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는 것입니다》라고 교시하였다. 당은 이 강령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 문화 혁명에서도 지난 시기와 같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 당을 믿음직하게 방조할 것이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의 총 로선은 가까운 기간 내에 수리화, 기계화 및 전기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지난 기간 민청 단체들과 청년 학생들은 우리 당이 제기한 수리화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 수행하여 로력적 위훈을 세웠다. 가는 곳 마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청년 저수지, 청년 양수장, 청년 수로, 청년 제방의 이름들이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3개월 간에 청년들은 연 480여만 공수의 로력을 바쳐 1, 180여 개소의 중소 관개 공사, 87 개의 저수지, 237 개소의 양수장 공사를 완수하였다.

우리 당은 최근 2~3년 내에 수리화를 완성할 과업을 제기하면서 이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실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 학생들은 앞으로도 당이 제기한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공사에서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여 1~2년 내에 100만 정보로 확장할 데 대한 제 일 단계의 과업을 1960년 영농기 전으로 기한을 앞당겨 완수할 것이다.

농촌 기술 혁명에서 중요한 문제인 기계화는 로력을 절약하고 농업 로동을 헐하게 하며 생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방도이다.

지금 청년 학생들은 농업 로동의 기계화를 위하여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도처에 《청년 발전소》, 《꼬마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농촌 작업의 동력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함남도 리원군 성곡리 청년들은 종합 탈곡기와 랭상 모판 제작기, 두류 파종기, 베아링그 우차를 비롯한 20여 종의 새 농기구를 창안함으로써 농업 로력을 약 50%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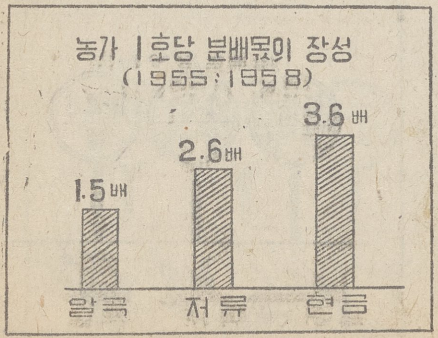
농촌 청년들은 앞으로 집단적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하고 농기계들을 동력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 전기화를 1~2년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힘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군중적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행군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자!

농촌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선진 기술을 소유하고 현대적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인재를 다량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청 제 4차 대회는 농촌 청년들의 기술 학습에 대한 지향과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요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2만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대회 결정은 농촌 청년들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민청 단체들은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미 1, 753명의 기수를 양성하고 14, 612 명의 일부 과목 합격자를 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에서 살며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변을 말하여 주고 있다.

민청 단체들은 1961년까지 2만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하여 매개 농업 협동 조합에서 평균 6 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일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을 위하여 4~5년 내에 3만~3만 5,000 대의 뜨락또르와 2만 5,000~3만 대의 화물 자동차를 보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은 가까운 기간 내에 자동차, 뜨락또르, 액쓰까와또르 운전수들과 전기, 기계 기능공을 양성할 대책을 제기하였다.

민청 단체들은 우수한 청년들을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양성 기관에 파견하며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해당 기관과 함께 최근 3~4년 내에 전국적으로 12만명의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운전수들을 양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개 협동 조합에서 운전수를 30 명씩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이 밖에도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와 목축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능공들을 광범히 양성하는 운동을 군중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수한 착유공, 양돈공을 비롯한 4만명의 축산 부문 기능공을 1960년 내에 양성하며 전기, 기계 기능공 양성을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농촌 경리가 요구하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가까운 장래에 해결할 것이다.

집약 농법을 적극 도입하여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자!

당은 집약적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

시켜 정당 수확고를 수리 안전답에서는 10~15톤, 밭에서 옥수수는 4~5톤, 밀은 3~4톤으로 높이며 알곡 생산을 700 만톤에 이르게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기본 고리는 관개, 심경, 밀식과 함께 자급 비료를 다량적으로 시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 농촌 청년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급 비료 증산 경쟁은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평남도 강남군 장교리 초급 민청 단체를 비롯한 많은 민청 단체들에서는 이미 전반적으로 정당 200톤 이상 시비할 수 있는 자급 비료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자급 비료 생산의 중요성을 말로는 많이 강조하나 아직도 수공업적 낡은 방법에 매달려 있으며 심지어 자급 비료 생산에 나서는 청년들을 차요한 작업에 돌리는 일까지 있다.

민청 단체들은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 청년 자급 비료 생산반들을 고정시키고 이를 수공업적인 방법으로부터 공업적 방법에로 전환시켜 년중 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리 안전답에는 정당 평균 200톤 이상의 자급 비료를 생산 시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선진 영농 기술을 대담하게 도입하고 다수확 기록을 창조 보급하는 투쟁에서 청년 시험 포전들이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운전군 운북 농업 협동 조합 청년들은 지난 해 정당 벼 45톤의 다수확을 거둔 경험에 기초하여 금년에는 한 정보의 시험 포전에서 900톤을 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시험 포전에서 정당 2,200톤의 자급 비료를 내며 1 메터 이상 심경을 보장할 계획 밑에 이미 5회의 기경을 끝내고 소요량의 자급 비료를 5층으로 시비하였다.

민청 단체들은 금년에 청년 시험 포전에서는 자급 비료를 정당 500톤 이상 시비하며 1 메터 이상의 심경을 보장하여 더욱 높은 생산 지표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 당은 목축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2~3년 내에 육류를 40만톤, 우유는 46만톤, 계란은 15억개, 양모는 700톤 이상에 이르게 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은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 청년 축산 작업반을 조직하고 그에 우수한 청년들을 파견하여 축산업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도록 할 것이다.

민청 중앙 위원회는 앞으로 량강도, 함북도, 함남도 청년들의 힘으로 몇개의 청년 목장을 담당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청년 목장은 현대적 축산물 가공 공장까지 설치하는 대규모적 종합 공장으로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축산업 발전의 모범적 경험이 창조 일반화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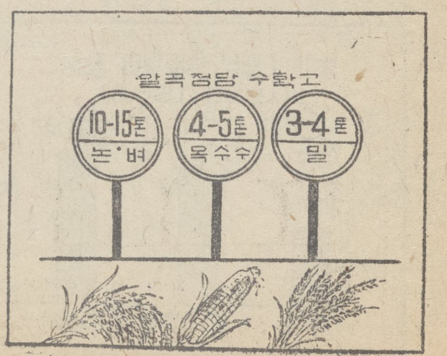
민청 단체들은 학생 소년들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토끼 사양을 위한 군중적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축산업 발전의 기본 고리는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민청 단체들과 소년단 단체들은 금년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운동으로 국가 과제 이외에 전국적으로 4만 정보의 칡산을 조성하며 120만톤의 호박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사료만으로서도 5만톤 이상의 육류를 생산할 수 있다.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2~3년 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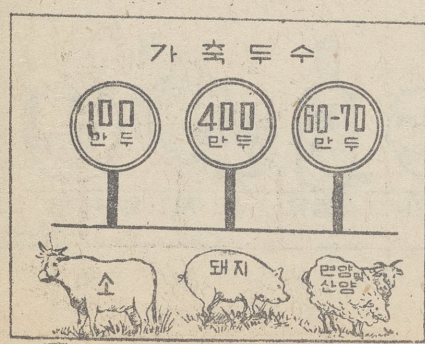
데 있어서 과수, 공예 작물 재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힘으로 산과 들과 마을, 정원, 도로 주변 이르는 곳 마다에 과수 묘목과 피마주 해바라기 등 유지 작물을 심는 군중적 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10만 정보의 과수원 적지 개간과 묘목 이식을 금년 중으로 끝마치고 1963년까지 10만 정보를 더 조성할 것이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2억 9,000만 본의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심어 16,000톤을 수확할 것이다.

공산주의적 지표를 더 빨리 돌파하기 위한 증산 경쟁의 불'길을 높이자!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쟁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때문에 민청 단체들은 앞으로 농촌 청년들 속에서 청년 작업반간, 협동 조합간, 군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집단적 혁신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민청 중앙 위원회는 농촌 청년들을 농업 생산의 일대 비약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보다 높은 지표를 설정하고 전국적인 증산 경쟁을 조직할 것을 예견 하고 있다. 증산 경쟁의 목표는 매개 농업 협동 조합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에서 단위당 알곡 수확고를 벼는 35톤 이상, 옥수수는

2~3년 내 전망



20톤 이상, 밀은 15톤 이상, 면화는 12톤 이상으로 하며 축산업 부문에서는 100호당 조선소는 100두 그중 젖소 40두, 돼지는 550두를 설정할 것이다. 시험 포전에서는 500평 이상의 면적에서 정당 300톤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 수'자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과 기술 혁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위대한 공산주의적 지표이다.

민청 단체들과 농촌 청년들은 영예로운 공산주의적 지표를 먼저 돌파하기 위한 천리마의 행군 대렬에 한 사람 같이 참가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로동 청년들과 인테리, 학생 청년들도 농촌 청년들의 이 공산주의적 행군을 적극 지지하여 군중적 지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문화적 농촌 건설에서 돌격대가 되자!

기술 문화 혁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농촌을 문화적으로 개건하며 농민 대중의 생활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는 오랜 세월을 내려 오던 초가 삼간 오막 살이를 허물어 던지고 아담한 문화 주택과 학교, 공동 식당, 탁아소, 유치원, 구락부, 목욕탕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마을의 오솔'길은 폭 넓은 신작로로 개변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 지역은 전기망으로 뒤덮여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전등'불이 휘황히 비치고 있으며 라디오가 들어가고 리 마다에 전화가 가설되고 있다.

농촌 청년들은 자기들의 행복한 앞날에 고무되면서 새로운 문화 농촌을 건설하는 투쟁의 앞장에 나서고 있다.

전국 각지에 조직되고 있는 청년 건설 작업반들은 지난해 1년 간에만 하여도 문화 주택 31,543 동, 2,000여 개의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 목욕탕을 건설하였으며 공동 축사 22,700여 동을 비롯하여 공동 잠실, 작업실, 창

고 등 생산적 건설을 문화적으로 개건하였다.

농촌 청년들과 학생 소년들은 광범한 식수 조림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전후 국가 식수 계획 면적의 74.6%를 담당하여 11억 3,000만 본의 나무를 심고 이를 보호 육성하였다.

민청 단체들과 농촌 청년들은 농촌 문화 건설을 담당 완성하며 산과 마을, 도로 주변 어데나 할것 없이 나무를 심어 조국을 푸른 락원으로 전변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은 그에 상응하는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 양식을 요구한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농촌에서 비문화적이며 비 위생적인 일체 낡은 생활 유습을 철저히 청산하고 공산주의적 생활 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할 것이다.

청년들과 학생 소년들은 농촌 주택과 공공 시설과 주위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꾸리고 개체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조직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급속한 기간 내에 우리의 농촌을 파리와 빈대, 모기와 쥐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염병이 근절된 위생적인 농촌으로 만들며 공산주의적 생활 양식이 확립된 문화적 농촌으로 전변시킬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낡은 사상 잔재인 개인 리기주의를 청산하고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존중히 하고 개인의 리익을 사회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집단 속에서 동지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을 착취 제도를 복구하려는 원쑤들과의 비 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줄 아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사로 육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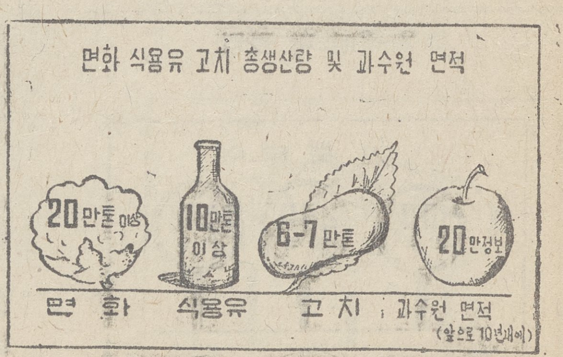
× ×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들고 새롭고 긴장된 투쟁에로 전체 농민들을 부르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대회 보고에서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은 당이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에게 주는 높은 신임의 표시이며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라는 당의 높은 요구성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칭호이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언제 어데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저 없이 달려 나갈 것이며 아무리 간고한 임무라도 어김 없이 완수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더욱 빛낼 것이다.

2~3년 내 전망.





편집부는 1930년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에서의 공청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소개하여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편집부는 독자들의 요청을 당시 공청 대렬에서 싸운 박 성철 동지와 백 학림 동지에게 전달하였는바 동지들은 이를 쾌히 응낙하고 집필하여 주었다. 편집부는 다음에 두 동지의 옥고를 실으면서 독자들과 함께 두분의 혁명 선배에게 감사를 드린다.

청년들과의 군중 공작 중에서

박 성 철

1932년 봄, 나는 공청 조직에서 공작 임무를 받고 연길현 팔도구 광산으로 갔다. 내가 맡은 과업의 내용은 광산 로동 청년들을 교양하여 핵심 청년들을 공청 조직에 받아 들이는 한편 유격대에 추천하는 것이였다.

지금 같으면 민청의 파견장을 받아 가지고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보이고 적당한 장소에서 공작하면 된다. 그러나 당시는 도처에 일제 경관놈들과 그 앞잡이인 주구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히번득거려 자칫하면 탄로가 나서 잡히운다. 그래서 공작 임무 수행에는 최대의 심중성과 경각성이 요구된다.

우선 내가 광산에 가서 앞으로 련계를 맺고 사업할 동지를 찾기 위해서 조직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 주었다.

《동발 팔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오랍니까?》

《사흘 후에 오시요.》

《이틀 후에 오면 안됩니까?》

《이틀 후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담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동지라는 것을 알게 되여 다시 찾아 가야 한다. 다시 찾아 가서 동발 있는가고 물을 때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면 동지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때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한다.

《어째서 동발이 있는데 거짓말 합니까?》

《나는 동발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집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맞아 떨어질 때 다시

《관방을 압니까?》하고 물으면

《압니다, 그게 보위탄이 아닙니까?》 하고 대답한다. 이때에 그 동무가 어디 있는가고 물으면 비로소 그 조직원에게 안내해 준다.

내가 이런 암호를 써서 만난 사람이 리 천결(별명)이라는 동지였는데 나는 그의 지시를 받아 공작에 착수했다.

당시 팔도구 광산에는 약 3, 000여 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구성이 아주 복잡했다. 순전한 로동자들은 겨우 30%에 지나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농촌에서 돈'벌이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청년들이였다. 그래 우리는 이런 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이들을 조직에 받아 들이기 전에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부터 착수했다.

지금은 청년들을 민청에 받아 들이자면 사전에 개별적으로 혹은 집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준비시키면서 검열되고 단련된 동무들을 민청 총회에서 집체적

심의를 거치면 되지만 그때에는 사정이 달랐다. 내가 일하고 있던 팔도구 광산에서만도 우리 동무들이 많이 들어가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다른 자기의 조직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동무이고 누가 적인지를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더욱이나 적들도 광산에 우리 조직이 있는 것을 눈치 채고 앞잡이들을 몰래 박아 넣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우리들은 늘 놈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제각기 비밀리에 사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내가 광산에 들어 가자 처음 하게 된 일은 질통을 지는 일이였다. 그러다가 나중엔 막장 일까지 배워서 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공청 조직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불리하였다. 왜냐하면 갱내에서 열두 시간 이상씩이나 일하다가 나와서 정까지 베리고 나면 로동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광주 놈에게 막장 일은 힘들어 못하겠다고 떼를 써서 로동자들과 될수록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취사원(식모)으로 되였다.

여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30~40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 린색한 광주 놈은 서기를 따로 두지 않고 나더러 이 일까지 겸해 보라는 것이였다. 나는 마침 잘 되였다고 생각했다. 서기 일까지 하게 되면 더욱 로동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 일을 하게되자 나는 차차 로동자들과 친해지게 되였고 허물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짬만 있으면 그들과 함께 휩쓸리여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힘썼다. 한편 서기 공작을 리용하여 장부를 만드는 척 하면서 로동자들의 가정 형편, 그들의 경력과 성격까지도 자세하게 료해할 수 있었다.

한편 나는 그들과 한통속이 되여 광주 놈들에게 불평을 부리는 척 하면서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기에 노력했다. 온 종일 굴 속에서 고된 로동에 시달리다 나와 기진 맥진하여 쓰러진 청년들 틈에 끼워서 왜 우리가 이처럼 뼈가 녹아 나도록 일을 하고서도 지지리 못사는가를 이야기 해 주군했다.

당시 이 금점판에서 돈에 눈이 뒤집힌 투기업자들은 로동 조건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금맥이 있을만한 데를 디리 파는데 금맥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발도 받치지 않고 그야말로 두더지 굴 처럼 디리 팠다. 이렇다 보니 락반이 져서 사람이 상하는 수가 많았으며 또한 굴이 좁아서 남포를 터뜨리면 굴안의 공기가 몹시 나빴다. 일부 로동 청년들은 구뎅이 속에서 까무러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악 조건에서 일을 해도 광주 놈들은 임금을 돈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장부 책에 적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내주겠다는 것이였다. 그래 나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며칠 전에 일인(日本人) 광주와 감독 놈이 소근거리는 것을 들었는데 금이 나면 주고 금이 안나면 안주겠다고 합디다.》라고 광주 놈들의 구랭이 같은 《심산》을 폭로했더니만 로동자들은 여지껏 자기들을 속이여 온 놈들을 당장이라도 쫓아 가서 해낼 기세였다.

이런 기회를 타서 나는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이 결코 부모들의 탓이나 우리 자신들의 《팔자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그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제 놈들과 바로 이처럼 우리를 부려먹고도 임금까지 내여 주지 않는 자본가와 지주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차차 이들의 계급적 의식이 높아지게 되자 나는 믿을만한 핵심 청년들에게 우선 삐라를 붙인다든가 종이를 사오는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반일 삐라가 자주 나붙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종이를 좀 많이 사면 놈들이 수상하게 보았고 또 의심되는 사람에겐 아예 팔지부터 않아서 종이를 사는 일도 어려운 일이였다). 이렇게 우리는 실지 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준비된 동무들을 조직에 받아드렸다.

우리들이 광산에서 이렇게 공작하는 사이에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유격 근거지가 형성되였고 적들과의 무장 투쟁을 진행하면서 당과 공청 조직이 확장되였다. 광산 안에서도 당 및 공청을 비롯한 일체 반일 조직이 확장되여 가게 되자 적들은 광산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동발에 삐라가 자주 나붙었다. 놈들은 눈알이 뒤집혀서 날뛰였다.

여지껏 유격대가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놈들이 광산 안의 비밀 조직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놈들은 《백 명 죽이면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껄여 대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덮어 놓고 붙잡아 드렸다. 그리고 100여 명씩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뎅이를 파게 한 다음 생매장을 해버리는 야수같은 학살을 감행했다.

이렇게 일제는 조직을 파괴하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마스면 수습하고 또 마스면 수습하여 다시 공작을 계속했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이 우리 광산 지대에 찾아 오기 시작하자 우리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으며 준비된 동무들은 직접 유격대에 입대 하군 했다. 이때 유격 대원들은 로동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돌아 가군 했다.

유격 대원들은 사람 이하의 학대를 하면서 로동자들의 피땀을 빨아 먹는 일제와 자본가 놈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한편 로동 보호시설의 개선, 8시간 로동제의 실시를 위한 투쟁에 로동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우리 공청원들은 당의 지도 밑에 광산 내부에서 비밀리에 로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임금을 내라!》 등의 구호를 들고 투쟁하도록 조직했다.

백가라는 놈이 경영하던 갱에서는 로동자들이 《막교대로서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강경히 주장하면서 나가 누웠다. 놈들은 하는 수 없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 주게 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로동자들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였다. 이것이 전례가 되여 이 광산 지대에서는 이때부터 3교대 제로 넘어 갔다.

김 일성 동지를 위시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직접적인 지도를 받은 공청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조건 하에서도 굴함 없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며 일하면서 자기 조직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우수한 공청원들을 당과 빨찌산 대렬에 부단히 보냈다. 말하자면 공청은 당의 후비대였으며 빨찌산의 저수지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된 혁명적 청년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오늘 조선 로동당의 충직한 방조자이며 전투적 후비대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이고 있다.





조직에 대한 충실성

백 학 림

항일 투쟁 시기 공청원들에게 있어 조직의 위임과 결정은 목숨 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여서 어떠한 희생이 있드라도 어김 없이 실천하였다. 조직의 위임에 대한 충직성—그것은 공청원들의 생활 신조의 하나였다.

김 철호 동무는 놈들의 비밀을 탐지하여 유격대에 통보하라는 공청 조직의 위임을 받고 적들의 통치 구역 안에서 사업하다가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참아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몸서리 치는 고문이 련일 계속되였다. 그러나 놈들은 그에게서 《모른다》는 한 마디의 대답 밖에는 들어 내지 못하였다.

고문의 방법으로서는 그의 입을 열게 할 수 없음을 알게된 놈들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다.

하루는 유격 대원으로 가장한 정탐을 한 감방 안에 넣어 보기도 했고, 며칠동안 물 한 목음 주지 않고 굶겼다가 상 다리가 휘여들 정도로 차려 놓은 밥상 앞에 그를 《초빙》해 보기도 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이밥에 갈비'국 그리고 싱싱한 굴, 이밖에도 갖가지 실과들로 그를 낚워 보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놈들은 여기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철호 동무는 그 참기 어려운 기아와 갈증도 조직의 위임에 충실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이겨냈던 것이다.

놈들은 요번에는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도 그의 입을 열게 하지는 못했다.

그날'밤 놈들은 철호 동무를 석방하여 주었다. 그것은 그의 뒤를 밟아서 유격대의 행처를 알아 내자는 술책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술책에 그가 넘어갈 리 없었다.

이웃 사람의 부축으로 겨우 집에 돌아 온 철호 동무는 몸이 추세워지는 동안에 놈들의 강요에 못 이기는 체 하고 있었다. 며칠 있다가 그는 유격대에 빨리 찾아 가기 위하여 유격대의 비밀을 대주겠노라고 놈들에게 거짓 《약속》을 해 놓았다.

이래 놓고 그는 적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늦추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철호 동무는 놈들의 손아귀에서 깜쪽 같이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조직이 준 임무 수행에서 그처럼 충실했고 끝내 비밀을 고수한 그는 무사히 유격대로 돌아 왔다.

이처럼 공청원들은 때로는 놈들에게 체포되여 가진 악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협산 준령을 넘는 원쑤 소탕전에서도 또한 온 겨울 한 철을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굴함없이 조직의 위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내가 아동 혁명단 생활을 거쳐 공청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32년이였다.

하루는 우리 공청 지부 총회에서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낼 것을 결정했다.

다른 공작 임무는 그래도 적들의 눈을 피해 가며 하는 일이였지만 이 일만은 맨주먹으로 원쑤와 맞다들어서 생사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였다.

우리 공청원들은 조직이 준 과업에 충실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운 위임이라도 수행하군 했다.

우리는 때로는 날창과 곤봉을 가지고 악질 지주네 집과 수비대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내기도 했다.

우리가 발김을 매고 있던 어느날이였다. 멀리서 순사 두놈이 총을 메고 우리 쪽을 향하여 꺼드럭 거리며 걸어 오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놈들을 해치우고 무기를 빼앗아 내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놈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놈들은 우리에게로 다가 오더니만 다짜고짜 강을 업어 건네라고 호통질이였다.

마침 잘 걸려 들었다고 생각한 우리 공청원들은 《나아리! 우리가 업어 건너 드리죠》라고 하면서 군말 없이 선뜻 나섰더니만 놈들은 우리 두 젊은이를 《기특》하다고 보았던지 해벌쭉히 웃으면서 냉큼 우리 등에 업히였다.

좀 힘이 들기는 했으나 어떻게 하든지 무기를 빼앗아야만 했다. 차차 강 중심부에 이르자 우리는 일부러 깊은 데로 걸어 들어갔다. 물이 깊어짐에 따라 놈들의 두 다리가 물에 잠기게 되였다. 그랬더니만 이놈들은 얕은 데로 건너가지 않는다고 지랄이였다.

우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놈들을 냉큼 물 속에 거꾸로 처박아 넣은 다음 허우적 거리는 순사놈들의 정수리를 총탁으로 후려 갈겨서 수장을 지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놈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빼앗아 냈다.

녀성 공청원이였던 허 창숙 동무는 공작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적들에게 눈치를 채이게 되였다. 원쑤놈들의 감시를 받게 된 그는 이젠 더 견디여 내기가 어렵게 되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토성 밖으로 빠져 나가야 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 챈 놈들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 다니면서 좀체로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조직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 앉을 수는 없는 일이였다.

아무리 궁리를 해 보아도 묘책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다. 어느날 그는 돐도 지나지 않은 젖메기 어린애를 시아버지에게 맡겨 놓고 빨래함지를 이고 집을 나섰다. 빨래를 하자면 토성 밖의 강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놈들은 이때만은 쉽게 속아 넘어갔다. 아마 제놈들 딴에는 젖메기 어린애를 두고 달아 나지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강'가까지 무사히 나온 그는 한참동안 빨래를 하는척하고 있었다. 놈들이 뒤를 따르는 기색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이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동작을 취했다.

창숙 동무는 빨래를 하러 나간채 돌아 오지 않는 것을 놈들이 알게되면 뒤따를 것을 념려하여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알게 하려고 강역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고 오솔'길로 접어들어 빨찌산 대오를 찾아 떠났다.

에미의 젖꼭지를 찾는 어린 자식의 애처로운 울음 소리가 귀'가에 쟁쟁히 울리는 것만 같아서 그는 몇번이나 걸음을 멈추었는지 모른다. 허나 이때마다 그는 《오냐, 내 기여히 수 천 만배의 불벼락을 원쑤놈들에게 들씌우리라!》고 굳게 마음 먹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끝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공청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어떠한 악전 고투 속에서도 조국의 오늘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혁명 승리를 위한 조직의 위임에 충실하였다.

오늘 청년들은 민청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다.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온 공청원들의 굴함없는 투쟁 정신을 본받아 조직 생활에 충실하며 그가 준 임무 수행에 견결할 줄 알아야 한다.

민청은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이다. 민청 조직의 위임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 사회를 더 빨리 맞이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 《공산주의 로동이라는 것은……자원적인 로동, 기준량과는 관계없는 로동이며, 보수를 타산하지 않는, 보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로동이다》
>
> (레　　닌)

공산주의적 로동과 청년 돌격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그런데 이 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산주의적 로동이다. 레닌은 공산주의적 로동을 《자원적인 로동, 기준량과는 관계 없는 로동이며, 보수를 타산하지 않는, 보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로동》이라고 가르쳤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 의하여 광범히 조직 운영되고 있는 〈청년 돌격대〉, 〈청년 브리가다〉가 바로 이런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를 체현하고 있다. 그들은 당 정책을 관철하여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다 빨리 건설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고상한 자각 밑에서 일한다. 때문에 그들의 로동은 언제나 **자원적인 로동**이다.

수성—고무산간 복선 부설 공사 때 있은 일이다.

공사를 하루 바삐 끝내여 철도의 수송을 보다 원활히 보장할 결의에 불타는 청년 건설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 일에 동원되였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여 밤 작업을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지시도 그들의 념원을 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날 밤, 〈복선 청년 돌격대〉 박 상봉 동무는 밤이 깊어지자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 났다. 낮 작업에서 채 마치지 못한 폭탄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옆에서 자는 줄로만 생각한 오 기전 동무가 눈치를 채고 《자네 어델 가나?》하고 물었다. 당황한 박 상봉 동무는 《아니야 그저 좀 더워서…》 라고 얼버무리면서 밖으로 나갔다. 뒤'이어 오 기전 동무도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그 옆에서 자던 지 종남 동무도 눈치를 챘다.

이렇게 하여 밤중에 다섯명의 돌격대원들이 침실을 빠져 나가 밤새껏 폭탄 구뎅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이 어찌 이들에게서만 있는 일이겠는가!

한때 평양 제 8 건설 트레스트 건설장에서는 벽돌이 부족하여 작업에 지장을 준 일이 있다. 영제교 부근 대동강 물속에 수십만 매의 벽돌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한 이곳 청년 돌격 대원들은 이를 건져내여 부족되는 벽돌을 해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작업은 허리통을 치는 찬물 속에서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곤난도 이들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모두다 물 속에 뛰여 들어 밤새껏 작

> 《계급 사회에서 로동은 천하고 무거운 고역으로 되여 왔으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영예롭고 즐거운 일로 되고 있습니다》
>
> (김　일　성)

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0 여 만 매에 달하는 벽돌을 건져 내여 작업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청년 돌격대〉의 로동은 **기준량과는 관계없는 로동**이다. 어제'날의 기준은 벌써 오늘에 와서는 낡아 지며 오늘의 기준은 또 새로운, 더 높은 기준으로 바뀌여 진다. 이들에게 200~300%는 흥미없는 수'자이며 〈100% 초과 완수〉는 청년 돌격대의 수치로 생각한다.

송남 청년 탄광 개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받들고 〈100 메터 바통 운동〉을 〈200 메터 바통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보수주의에 걸린 일부 기술 일'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청년 개발자들은 리 정삼 로력 영웅을 선두로 하여 발기 실천에 나섰다. 그들은 로력 조직을 4조 3교대로 개편하고 첫 작업에 착수했다. 첫 작업에서부터 성과는 올랐다. 종전까지 한 교대에 겨우 한 발파씩 보장하던 것이 4시간에 한 발파씩 함으로써 하루 굴진 속도를 종전 2~3 메터에서 8 메터 높이에까지 올리는 새 기준량을 창조하였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일할 때 **보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질적으로 더 우수하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당의 기대와 인민의 요구에 보답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때문에 그들은 금년도 계획을 로력의 추가 없이 작년 보다 2~3배로 높일 것을 한결같이 결의하면서도 누구도 보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수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을 에이는 대동강 물 속에 뛰여 들어 벽돌을 건져 내며 또 지휘부의 눈을 피해 가며 밤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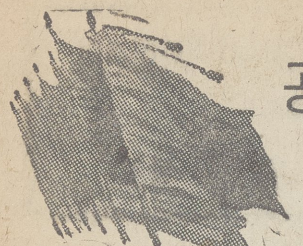
오늘 우리 나라 방방곡곡의 건설장에 수 많이 조직되여 있는 〈청년 돌격대〉, 〈청년 브리가다〉의 로동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훈련된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 속에서 발로되는 공산주의적 로동의 귀중한 싹들이다. 민청 단체들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 로동의 새 싹들을 지지하여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 돌격대는 로동에서만이 아니라 생활과 학습에서도 공산주의적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기술 학습과 정치 학습을 모범적으로 하여 높은 문화와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 상 민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정 태 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웅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공산주의를 먼 장래의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현실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보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여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산주의 사회를 그 발전 정도로 보아 두 단계로 구분한 데 불과하다. 즉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낮은 단계)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부르고 공산주의 사회의 둘째 단계(높은 단계)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이 두 단계 즉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는 다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청산되고 생산 수단이 근로자들의 공동 소유로 되여 있고 자본가, 지주 등 착취 계급이 소멸됨으로써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가 없다는 점에서 본질상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금방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 나온 사회이니만치 아직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있게 되는 바 로동자와 농민 계급의 존재,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차이,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하면 아직도 생산력이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로동에 따라》라는 분배 원칙이 실시되는데 공산주의 하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수요에 따라》라는 분배 원칙이 실시된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 과정에서 준비되는데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되고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자본주의 잔재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생산은 최고도로 발전하며 국가의 기능도 점차 소멸되게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제품 생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물이 많이 생산되여 사람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게 된다.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그때에 가면 생산물이 폭포와도 같이 쏟아져 나온다. 이처럼 풍족한 제품 생산은 사회 생산 능력의 비상한 제고로써 이루어진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전국의 전기화, 전면적인 자동화, 원자력의 광범한 도입에 기초하여 문화적이고 숙련도가 높은 일'군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규모적인 기계 생산이 급속히 발전한다.

전 인민적 소유제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로력과 자금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은 힘들거나 몸에 해로운 작업들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며 자동 기계를 조절만하면 지금까지 백명, 천명, 만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으로써 능히 할 수 있는 데 까지 이르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소멸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남겨 놓은 유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농촌은 도시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락후하다.

자본주의하에 있어서는 도시는 농촌을 가혹하게 착취한다. 이런 데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필연적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청산되였고 그 차이도 점차 소멸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생산력이 아주 발달하게 되므로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고도로 발달된 기계를 리용하여 생산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당이 실시하는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가 완성되면 농촌 경리에서 뜨락또르, 꼼바인 등을 광범히 리용하게 되며 기타 많은 자동 기계들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여 농촌 기술 수준도 도시를 따라잡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 많은 시설들 즉 학교, 도서관, 극장, 영화관, 구락부 등과 함께 세탁소, 식당, 편의 시설들이 건설되여 농촌의 문화 수준이 도시를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별이 소멸된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차이가 완전히 소멸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문화와 과학 기술은 착취 계급들의 독점물로 되고 로동자, 농민들은 전적으로 육체 로동에만 종사하게 된다. 정신 로동은 다만 착취 계급의 출신인 인테리들이 담당하여 착취 계급에게 복무한다. 이리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이 대립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각자는 반드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로동이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훈련되고 교양된 사람들은 로동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므로 이것이 가능하다. 깨끗한 작업 장소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자동 기계를 조절하는 것은 마치도 어떤 운동을 하는 것 같이 즐거우며 그것이 없이는 가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로동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활에서 떼여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관습으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로동 시간은 극히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되며 그 시간에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며 문학이나 예술을 즐기며 이 부문에서 자기의 소양을 높일 수 있다.

결과 사람들의 문화—기술 수준이 비상히 높아져 모든 근로자들이 기사, 기수의 수준에서 일하게 되며 어떤 작업이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이 높아지므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국가의 기능이 조락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완전히 소멸되며 절도, 살인, 방화 등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낡은 잔여들이 완전히 소멸된다. 이 때에 가서는 국가가 사회 질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 때에 가서도 세계의 한구석에 제국주의 국가가 남아 있다면 그의 침략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보위할 기능만이 남게 될 것이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완전히 멸망하여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승리한다면 국가의 이와 같은 기능도 없어지고 국가는 소멸될 것이다.

이 때에 가면 전 세계 인민들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으며 호상 친 형제와 같이 단결되여 세계는 하나의 큰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수요에 따라》라는 분배 원칙이 실시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언제, 어데서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인류 사회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분배 원칙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물이 얼마든지 나오며 로동이 근로자들의 습관으로 되는 조건하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분배 원칙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생산물이 풍부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분배에 있어서도 매개 사람들이 일한데 따라서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물이 얼마든지 나오며 또 로동이 근로자들의 습관으로까지 되기 때문에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수요에 따라》 받는 분배 원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산주의 문어구를 향하여 더 빨리 전진하자!

이상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 인가를 보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사회로서 인류 력사에서 가장 높은 사회인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그의 물질적, 사상적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 사회를 보다 빨리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더 공고 발전시키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완성하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광범히 도입하며 생산력의 발전을 높은 수준에 도달케 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 공업 부문에서의 설비의 부단한 개조, 선진 기술의 광범한 도입에 의한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 농촌 경리 부문에서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는 이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하는바 청년들은 자기 사업의 능수가 되며 모두다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라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혁명은 온갖 낡은 것을 분쇄하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행정이다. 때문에 우리의 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함이 없이는 낡은 사회를 개조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위업이 달성될 수 없다.

여기에서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청년들은 자신들을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으로 무장하는 데 모범이 되여야 한다.

조선 로동당 (1)

조선 로동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

조선 로동당이 창건된 력사는 1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은 해방후 빈터에서 창건된 것은 아니다.

조선 로동당 규약 제 1조에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이다》라고 명시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조선의 혁명 투사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15개 성상의 피어린 항일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이룩하여 놓은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이 간고한 투쟁 속에서 육성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이 가장 암담하던 일제 통치 시기에 백두의 밀림과 만주 벌판에서 조선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의 기'발을 높이 들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선진적 로동자, 농민 및 애국적 청년들을 결속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 무장 대오를 조직하였으며, 처음으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였고, 첫 맑스—레닌주의적 투쟁 강령을 제시하였다. 또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대중 속에 튼튼히 뿌리 박고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 배양하였으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우경적 기회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온갖 낡은 사상과의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 운동의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차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꾸준히 조직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항일 투쟁 행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으며 이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애국적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면 우리 당이 계승 발전시킨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항일 무장 투쟁의 고귀한 사상 체계

그것은 우선 항일 무장 투쟁의 고귀한 사상 체계이다.

항일 무장 투쟁의 사상 체계는 바로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며 우리 나라에 그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 정신이다. 항일 빨찌산은 압박 받고 천대 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령도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헐벗고 굶주리던 근로 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웠다.

우리 당은 바로 이와 같은 진실한 공산주의적 사상 체계를 계승하였다.

항일 빨찌산 부대는 조국 광복회의 10대 강령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주권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토지 개혁과 8시간 로동제의 실시와 같은 진보적 사회 개혁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이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오늘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 령도하고 있다.

새 것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다음으로 우리 당이 계승한 전통의 하나는 새 것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다.

혁명은 간고하다. 낡은 사회 제도를 전복하고 일하지 않고 남을 착취해 먹는 자들을 없애고 다 같이 일하고 행복하게 살 새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실로 항일 빨찌산들은 무수한 난관을 극복 타개하면서 15개 성상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빨찌산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였고 식량과 피복도 적과의 투쟁을 통해서 적의 것을 빼앗아 해결하였다.

일제는 마지막 시기 빨찌산에 대하여 《너희들은 바다에 좁쌀알만 하다. 즉 창해의 일속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대일본 제국을 반대하여 싸우겠는가?》라고 쓴 삐라를 살포하면서 투항할 것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빨찌산들은 굴하지 않고 싸웠다. 그들은 새 것이 승리하고 낡은 것은 소멸된다는 것, 즉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맑스—레닌주의의 굳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빨찌산의 한 녀성 대원은 정찰을 나갔다가 부상 당하여 홀로 산중에 떨어지게 되였다. 량식은 한 줌의 쌀 뿐이였다. 그는 동지들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40 여 일간이나 적을 피해 다니면서 굶고 신음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이 지난 전쟁 시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도당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것도, 전후 어려운 고비를 뚫고 오늘과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 빛나는 승리는 조선 인민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곤난을 극복할 줄 아는 불굴의 투쟁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정신은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전통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다음으로 우리 당이 계승한 전통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이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구호는 항일 빨찌산의 기본 구호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였고 그들을 존경하며 아끼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어떠한 곤난한 처지에서도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다.

어떤 유격 소조원들은 식량이 떨어져 오래'동안 굶고 싸우다가 감자 밭을 만났다. 그들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였다. 대원들은 할 수 없이 약간의 감자를 캐 먹고 돈을 그 자리에 묻어 두고 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은 인민들로부터 항상 적극적인 지지와 물심 량면의 방조를 받아 15개 성상이라는 장구한 기간을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항일 빨찌산에 의하여 이룩된 이러한 고상한 인민적 사업 작풍은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해방후 짧은 시일 내에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여 인민 대중과의 굳은 련계를 강화할 수 있은 것도 모두다 우리 당이 이와 같은 전통을 계승했고 이러한 모범에 의하여 교양되였기 때문이다.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

항일 빨찌산의 다른 전통의 하나는 빨찌산 대오 내에서의 상부와 하부간의 혁명적 동지애와 계급적 단결의 정신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모두다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서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적으로 입대한 동무들로 조직되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굳은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혁명적 동지우애심이 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동지애는 무원칙한 맹목적인 것은 아니였다.

그들은 동지 호상간에 혁명의 리익을 위한 원칙에 의하여 확고히 결합되였으며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 원칙으로부터의 사소한 리탈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로 혁명적인 동지애로 결합되여 있었다. 이 전통의 계승은 오늘 우리 당 내에서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동지 호상간의 원칙적 단결을 굳게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다음으로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의 하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항일 빨찌산의 모든 활동과 투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장 투쟁을 장성하는 국제 혁명 세력과의 긴밀한 련계 하에 당시의 국제 반팟쑈 투쟁의 한 고리로 진행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쏘련의 위력의 장성 강화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무장으로 쏘련을 지지 옹호하자!》라는 구호 하에 투쟁하였다. 1938~1939년 일제가 쏘련 국경을 침공하던 시기에 빨찌산들은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와 일제의 배후에서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또한 빨찌산 부대들은 형제적 중국 인민과 함께 공동의 원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긴밀한 련계 하에서 투쟁하였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빨찌산 운동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민은 그가 중국 혁명에 준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주년 경축연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주 덕 부주석은 《조선 로동당과 정부의 여러 지도자들은 모두 중국 혁명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 일성 수상은 일찌기 중국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일 투쟁에 장기간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북 항일련군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혁명 전쟁 기간에 우수한 조선 혁명 투사들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중국 인민의 해방 사업에 바쳤습니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형제적 조선 인민이 준 장기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원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통일 단결된 불패의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어떤 복잡한 정세 하에서도 조선 혁명을 능숙하게 지도하여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떠나서는 리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빛나는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가장 큰 자랑이며 영예이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가 되여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살며 행동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확고 부동한 생활의 신조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애국적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학습하여 그를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기본으로 된다.

◇우주 로케트와 관련한 술어 해설◇

(43페지에서 계속)

메터를 낸다면 비단 지구뿐만 아니고 태양계까지 벗어나 다른 항성에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이 속도를 가리켜 제 3 우주 속도라 한다.

△ **자기 마당**—지남침은 항상 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지구에는 자력(磁力)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런데 지구의 자기 마당이란 지구의 자력이 작용하는 권내를 가리켜 말한다.

달에서도 자력이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쏘련의 우주 로케트에는 달의 자기 마당을 발견하기 위한 각종 측정 계기들이 장비되였다.

달 구역—우주에 있는 매개 천체의 주위에는 모두 인력 마당이 있는 것처럼 달과 지구의 주위에도 인력 마당이 있다. 그런데 달과 지구 사이의 어느 한 점에서는 달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이 균형이 잡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두개의 인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상반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인력 균형》 점이라고 한다. 이 지점을 지나 달 가까이로 가게되면 달로부터 받는 인력이 지구로부터 받는 인력 보다 크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달 구역은 바로 달의 인력이 지구의 인력 보다 크게 작용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다.

△ **인공 태양 위성 또는 인공 행성**—지구에서 달을 향하여 쏘아 올린 로케트가 달 부근에 접근할 때엔 그의 속도가 달의 리탈 속도 (달의 리탈 속도는 초속 2.3 키로메터) 보다 빨라서 달의 인력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때의 속도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속도(초속 30 키로메터)까지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태양의 인력에 끌리여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 즉 인공 행성으로 되였다.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가?

화장 비누 《제비》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다. 이 비누는 냄새도 향기롭지 못한데다 경도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3~4일만 쓰게 되면 벌써 물렁물렁해진다.

세수 비누란 원래가 때도 잘 지는데다 향기롭고 피부도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제비》표 비누를 써본 사람들은 세수를 안하니 보다 못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질이 낮은 비누가 나왔는가?

기자는 이 비누를 직접 만들어 낸 평양 유지 화학 생산 협동 조합 방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근본 문제는 사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착취 계급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전체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인민들이 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질 좋게 만들어 내기 위하여 창발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 일부 청년들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 조합에서야 어디 소나 돼지 기름을 씁니까? 게다가 설비도 좋지 않지, 그러니 천상 페기, 페잔물을 재생하여 쓰게 마련인데 할 수 없는 노릇



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질이 좋지 못한 비누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말대로 질이 좋지 못한 비누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 그처럼 불가피한 노릇이였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들은 이와 같은 《애로》를 코에 걸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는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료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보드라도 명백하다. 이 조합에서는 당초부터 원료를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페기, 페잔물을 재생시켜 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노력하였다면 돼지 가죽에서 긁어 내는 페잔물을 재생한다든가, 식당들에서 내버리고 있는 동물성 지방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조건이 불리하고 설

비가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했지 이를 타개하려고는 념도 내지 않았다.

인민들은 사회주의에 상응한 내용을 가진 제품을 요구한다. 제품의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제품은 인민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의 정신이 없이는 원만히 보장될 수 없다.

기술과 규률 문제

《제비》표 비누의 질이 낮은 또 하나의 원인은 기술과 규률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 조합에서는 원료와 약품 배합 비률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작업장이 불결한 탓으로 제품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 가는 것은 례사로운 일이였다. 또한 검화 온도 역시 정확히 보장되지 못했고 검화 시간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형편이 이런데도 일부 청년들은 《우리 조합에서야 큰 공장들 모양으로 그렇게 기술 규정을 따질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시설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며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또한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 고리인 제품 검사 역시 잘될 리가 없는 일이였다. 이 조합에서의 제품 검사는 《수박 겉 핥는》 식으로 해왔다. 이들은 제품 검사를 정해진 규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품의 중량과 겉 모양만 미끈하게 절단되였는가를 슬쩍 훑어 보고 말았다.

이러니 그처럼 질이 낮은 《제비》 표 비누가 아무 꺼리낌 없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이 공장의 경험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들의 부단한 기술적 개조,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함께 엄격한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여야 하는 바 생산 행정에서 규정된 기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제품의 검사 제도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의 주되는 문제는 질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전 직후의 복구 건설 시기와는 달리 선진적 기술 토대가 있고 또 선진적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만큼 제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한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급속도로 향상된 인민들의 수요는 무한히 장성 변화되였다. 인민들은 제품의 량만이 아니라 쓰기 좋고 편리하며 튼튼하고 모양 좋은 제품—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적응한 높은 질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모든 생산물에서 그의 질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오늘의 주되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평양 유지 화학 생산 협동 조합 내 청년들은 인민들에 대한 복무성을 높이여 높은 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할 것이다.

본사 기자 윤 세 용



누가 진실한 배우자인가?

최근 편집부는 한 통신원으로부터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함남 오로군 오로 종합 공장 민청원 박 정복 동무는 오로 철도 호위대에 근무하는 림 태길이라는 청년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복 동무는 퍽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태길 동무를 찾아 온 정복 동무는 《태길 동무! 우리의 약혼 문제를 좀 고려해 봐야겠어요. 만일 태길 동무와 결혼한다면 나에겐 아무런 행복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구요? 거야 동무와 결혼한다면 경제적 면에서든지 모든 생활 면에서 애로가 많을 것은 뻔한 일이니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 <궁합> 을 보니까 서로 맞지도 않는대요… 그러니 태길 동무와의 인연을 아예 끊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정복 동무는 태길 동무 뿐 아니라 다른 몇몇 청년들에게도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박 정복 동무가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같이 지내야 할 자기의 배우자의 선택을 진정한 사랑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경제적 타산이나 직위에 의하여 하려 하며 심지어는 미신적 편견에까지 사로 잡혀 있으며 또한 결혼 문제에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박 정복 동무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두말할 것 없이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낡은 봉건 사회에서는 결혼 문제가 주로 부모들과 중매'군들의 의사에 의하여 경제 형편이나 가문, 권세 등 타산에 의하여 처리되였으며 정복 동무의 경우와 같이 부모들이 《사주 팔자》라는 점을 쳐서 《궁합》이 맞아야만 결혼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남녀 당사자들의 의사와 애정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나 남조선에 있어서도 결혼은 진정한 사랑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타산과 종교적 편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사랑이 배우자 선택의 기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직위가 그 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랑과 량심 지어는 정조까지 매매한다. 이러한 사실은 돈이 《만능》의 힘을 가진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페지되고 남녀 평등권이 보장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남녀간의 결혼이 이러저러한 경제적 타산이나 부모들의 강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쌍방이 일생의 벗과 동지로서 행복한 사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적으로 노력하는 진정한 사랑에 의하여 성립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하고 순결한 사랑은 사리 사욕과 리기주의에서 벗어난 사랑이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공동적 로력과 충실성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다. 즉 여기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기초에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이 놓여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절대 다수의 남녀 청년들은 련애, 결혼에 있어서 낡은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악습들을 극복하고 순결한 사랑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상, 도덕 품성을 첫째 조건으로 삼고 심중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정복 동무와 같은 일부 청년들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심중성 있게 배우자를 선택할 대신에 경솔하게 처리하거나 진정한 사랑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리기주의적 타산을 전면에 내세우는 편향들이 있다.

일부 남성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물이 어떠한가?》, 《얼굴이 어여쁜가?》 하면서 외모를 첫 조건으로 내세운다.

대안 전기 공장 기술 공정부에서 공작하던 리 춘삼 동무는 이미 대학까지 졸업한 인테리 청년이다. 그는 몇해 전에 결혼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당하게도 자기 안해의 외모가 어여쁘지 않다고 배척하면서 다른 녀자와 애정 관계

를 맺으려 하고 있다고 통신원은 전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의 외모가 사랑의 기초로 될 수 있겠는가? 얼굴의 아름다움은 사상 및 도덕 품성의 아름다움과 언제나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얼굴이 고운 사람이 사상, 도덕 품성이 단정치 못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얼굴이 쑬쑬하게 생겼어도 마음씨가 고운 경우도 있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그가 사상, 도덕 품성이 단정치 못하면 어쩌겠는가? 또 사람이란 나이를 먹으면 늙게 마련이다. 늙으면 외모도 변하는 법이니 누구도 영원히 청춘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얼굴의 아름다움은 결코 배우자 선택의 첫 조건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박 정복 동무와 같이 일부 녀성 청년들은 경제적 타산을 먼저 하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만을 바라 보는가 하면 어떤 처녀들은 될수록 농촌을 떠나 도시 사람이나 사무원과 결혼할 것을 원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처녀들은 육체로동을 하는 총각과는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

평북 구성군 리구리 민청원 리 경숙 동무는 농촌에서 일하는 총각에게 출가하지 않으려고 들떠 돌아 다니다가 어느 한 도시 청년과 사랑을 맺게 되였다. 그후 경숙 동무는 상대방이 한개의 보통 로동자이고 자기의 《경제적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하여 부당하게도 파혼을 선포했다.

경제적 조건이나 직위는 사람마다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경제와 직위를 배우자 선택의 근본 조건으로 내세우는 처녀는 이 조건이 불리해 질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들뜬 처녀는 도시 사무원에게나 시집가서 남편이 받아 오는 임금을 쓰면서 따뜻한 가마'목에서 《편안》하고 《호화스럽게》 살아 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그러니 결국 이 처녀들에게는 결혼이 남편의 등에 업혀 살아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로동을 천시하고 경제적, 리기주의적 타산만 하는 것은 착취 계급의 사상 잔재이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이나 직업, 직위, 지식 수준 등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본 조건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사상적 공통성에 기초한 사랑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과 도덕적 품성이 더러운 사람에게 무슨 사랑할 가치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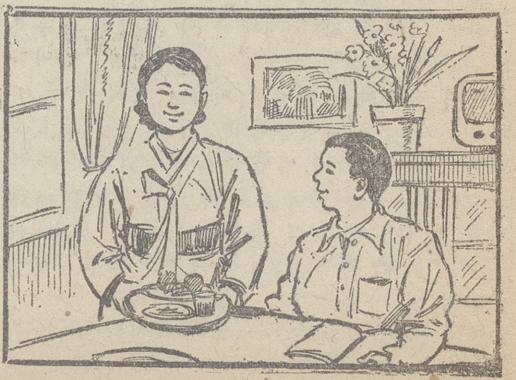
그런즉 결혼의 기초는 진정한 사랑이 되여야 하며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본 조건은 상대방의 사상, 도덕적 품성에 두어야 한다.

본사 기자 김 주 덕


그들은 로동 속에서 서로 알게 되였고



로력적 성과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더욱 굳어졌고


결혼하여 서로 도우니 생활은 행복하고 가정은 공고하여 졌다.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만들었다

박 충 배

오랜 세월을 두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며 이 세상 만물을 하느님이 관리한다고 주장하였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하느님이란 이 세상에 없으며 그것은 인간의 환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교를 믿는 사람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 놓은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먼저 하느님이 사람과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을 들어 보기로 하자.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느님이 흙으로 자기 모양을 빚어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되였다. 이것이 아담이라는 남자이다. 하느님은 아담이 하도 심심해 하기 때문에 그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갈비'대를 하나 뽑아 내여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이브라는 녀자이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종교 가운데서 제일 널리 류포되고 있는 기독교는 인간의 발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된다. 우선 이 주장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느님이 있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데 있었으며 지금은 어데 있는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은 멀고도 먼 하늘 나라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 천문학의 성과는 아주 멀고도 먼 하늘에는 별들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는 하느님과 비슷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하느님이 있음직한 곳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설사 그 어떤 별에 하느님이 살고 있다고 하드라도 거기에서 이 땅 우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며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을 내려 보냈겠는가? 인간은 수백만년을 살아왔지만 다른 별로부터 왔다는 사람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생리학은 사람의 마음이란 사람의 육체가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설사 하느님과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지배할 수 없겠는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덮어 놓고 믿으며 그 앞에 굴종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는가?

만일 하느님이 있어 그의 의사에 따라 세상이 돌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은 하느님이 저지른 것이 아니겠는가? 왜 하느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례컨대 조국 해방 전쟁의 후퇴시기 미제 침략 군대는 하느님의 이름을 내걸고 조선의 평화적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을 감행하게 하는가? 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앞에 굴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과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하여 오늘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인민들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던 때보다 더 잘 살게 되였는가? 또한 하느님이 《전지 전능》하다면 어찌하여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느님을 믿지 않게 해 놓았는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으며 또 결코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구라파 사람의 모습인가? 동양 사람의 모습인가? 하느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려 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느님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말 막연한 것이다. 바로 종교란 것은 막연한 것,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무엇, 보지도 듣지도 못한 허망한 것, 즉 하느님에 대하여 덮어 놓고 믿으며 그 앞에 굴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대 과학의 성과는 사람은 하느님의 장난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발달한 원숭이(이것을 류인원이라고 한다)로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점차적으로 사람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주 오랜 옛날에 원숭이 가운데서 가장 발달한 무리들이 나무 우에서 땅 우로 내려 오게 되였고 그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자 앞발이 해방되고 이 앞발은 나무나 돌을 잡는다든가 열매를 딴다든가 하는 복잡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여 점차적으로 손으로 되였고 이 손이 로동도구(아주 옛날에는 돌멩이를 모나게 쪼개여서 도끼로 쓰는 정도로 아주 유치한 것이였다)를 만들게 되였다. 이때부터 원숭이들은 동물과는 달리 다만 자연에 순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개조하여 생활수단을 얻어내는 로동 활동을 시작하여 사람으로 되였다. 즉 사람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발전의 결과 발생한 것이다.

× ×

이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류인원이 발전하여 사람으로 되였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즉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하느님을 만들어 냈다. 그러면 어찌하여 사람은 하느님을 만들어 내게 되였는가?

아주 오랜 옛날에 인간들이 아직 자연의 현상들(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교체, 번개, 우뢰, 동식물의 성장, 나아가서는 사람이 왜 죽는가? 등등)에 대하여 아무런 과학적인 설명을 줄 수 없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자연으로부터 여러가지 재난을 받게 되였다(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든가, 벼락에 맞아 죽는다든가, 병들어 죽는다든가, 홍수에 밀려 죽는다든가 등등).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었던 원시인들은 이러한 재난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였고 그 어떤 《신비로운 힘》에 대하여 굴복하게 되였는데 이것이 자연 종교였다. 오늘날도 극히 적은 범위에서나마 미신의 형태로 남아 있는 자연 종교는 자연적 재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줄 수 없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자연 과학을 알게 되고 자연의 재난을 극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연 종교는 없어져 갔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의 힘의 압박외에 새로운 압박을 받게 되였다. 그것은 계급 사회에서 사회로부터 받는 빈궁과 고난이였다. 자기가 심고 가꾼 것도 자기가 먹을 수 없고 죽도록 일해도 굶주려야 하는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듭 실패한 피착취대중들은 그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전능한 힘》을 생각하게 되였고 그 《전능한 힘》에 대하여 구원을 빌게 되였다. 이리하여 기독교를 비롯한 현대의 종교들이 발생하였다. 착취 계급들은 이렇게 발생한 종교를 근로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정신적 무기로 리용하였으며 타국 인민에 대한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였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들어 내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선 자기들의 무식과 무력으로부터, 그리고 자연과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과 공포로부터 하느님을 만들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지와 무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자연과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정도에 따라서 종교를 믿지 않게 되였던 것이다. 즉 자연과 사회가 발전하는 법칙을 알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자연의 재해를 극복할 수 있고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알게되자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착취가 소멸되였고 전체 근로 인민들에게는 행복한 새 생활의 길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종교가 남아 있을 사회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종교는 집요한 낡은 사상 잔재로서 일부 락후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다. 또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곤난과 난관 앞에 굴복하게 하며, 각종 신비주의적 환상을 일으킨다. 특히 미제와 이미 청산된 착취 계급들은 자기들의 반혁명적 목적에 종교를 리용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적 전진을 위해서는 종교를 근절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인내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과학적 리론을 꾸준히 배우고 자연과 사회의 비밀을 부단히 알아내여 이 세상에서 모든 《신비로운 것》의 본질을 폭로하며,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백전 백승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며 곤난과 난관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것을 타개하여 나아가는 백절 불굴의 실천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 소설들을 읽자

《인진 교주》《박 선생》《외교원과 전도 부인》《양 개》《비》

리 기영 선생이 쓴 이 소설들은 종교의 허위성과 반 인민성을 신랄하게 폭로한 것인데 민청 출판사에서 출판한 <보리 가을>과 <환상적 무지개>에 수록되여 있다.

자본주의 사상 잔재에 포화를 퍼부으라!

《저울질》 하는 청년

우리 기계 직장 리 철호 동무는 당과 정부의 혜택으로 전문 학교를 졸업하자 기계 기수의 자격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장에 왔다. 학교 시절부터 무슨 《벼슬 자리》나 《헐한 일》을 바라면서 공부한 그는 이곳 직장에 배치될 때 《좋은 일자리》에 배치될 것을 바랬다.

그런데 막상 배치된 곳은 자기의 생각했던 것과는 어긋났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될바에야 전문 학교까지 나온 보람이 없지 않는가?》고 생각하였고 차차 일에 열성을 내지 않았다.

그러더니만 《여기에선 내 기술을 다 발휘할 수 없다》고 불평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딴 직장으로 옮겨 갈 것을 제기해 나섰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기계 기수인 동무가 기계를 다루는 기계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발휘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데서 그 기술을 써 먹는단 말인가?》고 동지적인 충고를 여러번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들며 가지고 일에서 열성을 내지 않고 있다.

리 철호 동무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개인 리기주의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한자리》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더 잘 복무하며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수풍 발전부 기계직장
김 성 일

《호탕한 생활》의 말로

길주역 내 일부 민청원들은 매달 받는 생활비의 태반을 술값으로 탕진해 버리고 있다. 그리면서 이들은 생활을 절도있게 잘 꾸리는 청년들을 《졸장부》라고 비웃으면서 《사내 대장부》란 술도 마시고 《호탕》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바로 우리 역 련결원 신 태희 동무가 그러하다. 그는 합숙에서 생활하는 독신인데도 늘 남보다 먼저 생활비를 털어 먹고서는 이 사람, 저사람에게 돈을 꾸러 다니고 있다. 그러다가 간혹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동무의 사정도 몰라 본다》느니 《린색한 놈》이라느니 하는 당토 않은 시비질을 한다.

지난 해 11월에 태희 동무도 남과 같이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로 솜 동복을 탔다. 동복을 타 입은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이처럼 거듭되는 나라의 배려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고 새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그는 솜 옷을 받아 들기가 무섭게 상점에 가서 그것을 팔았고 그길로 식당으로 달려가서 술값으로 탕진해 버렸다. 그리고는 외투 없이 지내고 있다.

신 태희 동무의 이러한 생활 태도는 낡은 사회의 생활 태도이다. 당장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던 과거 일제 시기 로동자들은 자기의 생활을 문화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 속에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던지 생활을 잘 조직할 수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게 생활도 잘 조직할 줄 알아야 한다.

함북 길주역
김 창 권

낡아 버린 생활 양식

현실은 우리의 생활에서 비문화적인 것, 일체 낡은 생활 양식을 혁명적으로 타파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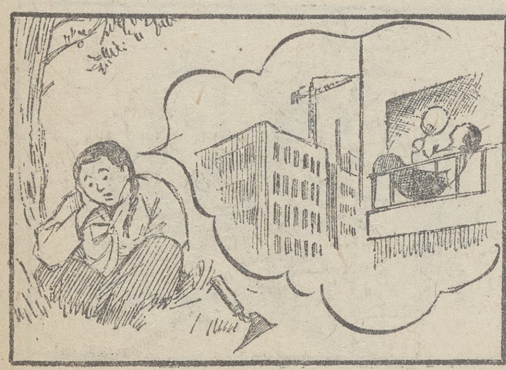
작업 반장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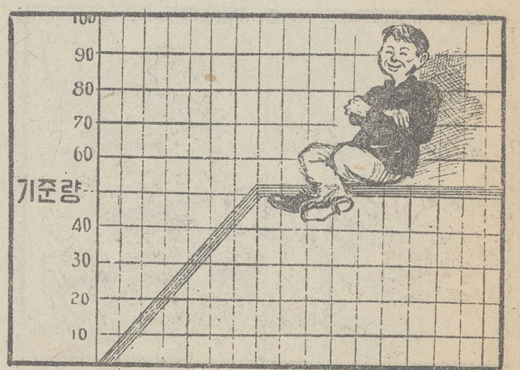
봉급을 타서는 이러지 말자!



들뜬 처녀의 《공상》



기준량은 달성했으니…



과거 락후하고 어렵게 살던 때에 무젖은 낡은 생활 인습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장 합숙 2호실에 살고 있는 리 춘봉, 유 범덕, 리 응선 동무들이 바로 그러하다.

2호실은 방문을 열기가 바쁘게 코를 찌를 듯한 악취에 그만 문을 다시 닫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그래 하루는 이웃방 동무들이 참다 못해 말끔히 청소를 해 주었다. 그러나 또 한 이틀이 지나면 역시 매한가지다. 이렇다 보니 발만 옮겨 디뎌도 방안에 쌓인 먼지가 날릴 정도이다. 이들은 방안의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을 신은채 방안에까지 들어 와서 지껄이고 놀다가 때로는 신도 벗지 않은채 쓰러져 자는 일이 종종 있다. 신발조차 벗기 귀찮다고 벗지 않는 형편이니 방안을 정돈해 놀리는 만무한 일이다. 방 한 구석에는 너저분한 양말짝이 딩구는가 하면 또 한 구석에는 오물 적재장을 련상케 하는 쓰레기 무지가 쌓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밤 늦게까지 쓸데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엔 시간이 박두해서야 겨우 일어난다. 이런 형편인지라 이부자리는 의례히 한구석에 쑤셔 박아 놓게 마련이다.

그들에게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건전하게 살 것을 충고하면 《…바쁜 통에 어떻게 일일이 거둬가며 살겠는가?》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낡은 생활 태도를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구실로써 그렇게 살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게는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이 보장되여 있다.

오늘에 와서 생활을 비문화적으로 너절하게 꾸리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와는 인연이 없는 낡아 버린 생활 양식이다.

평양 제 8 건설 트레스트
사동 경량 골재 공장
우 종천

건달 청년의 《꾀》

한때 우리 농업 협동 조합원이였던 김 형욱 동무는 지난해 《농사 일이야 평생을 두고 해보아도 농사'군이지 별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맞는》 직장을 찾아 떠났다.

그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끝에 탄광에서 일하게 되였다. 말하자면 그의 《소원이 성취》된 셈이다.

그후 얼마동안이 지나갔다. 하루는 출장 중에 집에 잠간 들렸다고 하면서 제집에 나타난 형욱 동무는 한 이틀 있다가 도로 가고 말았다. 그래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랬던 것이 어찌된 노릇인지 그후에도 출장 중이요, 집에 볼 일이 있어서…하면서 열흘이 멀다하게 집에 내려 와서는 2~3일씩 놀다 가기가 일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집에 백여서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

알고 보니 사연은 이러했다. 농사 일을 천하고 보람 없는 일로만 여기고 행여나 《좋은 일자리》가 있을가 하여 집을 떠난 그에게 탄광 로동이라고 마음에 들리가 만무한 일이였다. 정작 시작해 보니 농사 일만 못지 않게 《힘들고 어지러워》보였던 것이다.

욕심 같애서는 꼭 편안히 놀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자리가 없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였다.

그래서 그는 얼마간 일하는척 하다가 그것마저 걷어 치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 와서도 일은 하지 않고 계속 들떠 돌아 가고 있다.

김 형욱 동무는 언제까지나 건달을 부릴 작정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

함남 고원군
새밀기 농업 협동 조합
서 용덕

문제는 어데 있는가?

룡대 수산 사업소 가공 직장 일부 청년 포장공들의 무책임한 사업에 의하여 어로공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잡아 들인 물'고기가 인민들에게 제때에 잘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이 포장한 생선들이 기차에 싣기도 전에 파손되여 삐죽 삐죽 삐여져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인민들에게는 가끔 뭉개진, 질이 나쁜 생선들이 공급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포장 규격을 위반하므로써 수송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초에는 같은 제품을 포장한 것인데도 긴것, 둥근것, 짧은것 등 모두가 제각기여서 한차에 40여짝이나 더 실을 수 있은 것을 싣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 대해서 《우리 가공 부문에는 경험이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이여서 때로는 그렇게 허술한 것도 섞기게 된다》고 하면서 책임을 기술에 돌리고 있다. 아니다. 이 동무들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기술에만 있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선한 물'고기는 착취 계급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로부터 로동자들은 되는 대로 일했다. 바로 이런 사상 잔재가 완전히 퇴치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되는 사회다. 아마도 이들이 제집에 부칠 물건이였다면 그렇게 되는대로 포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함남 광천군 룡대역 배 형수

출근은 늦게 퇴근은 남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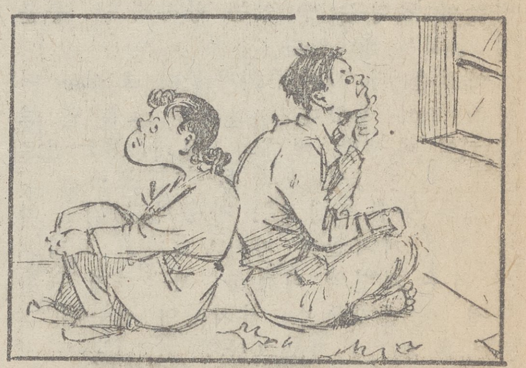




《멋》있는 사람에게 곱게 뵈야지.



걸으로만 보고 《사랑》을 청하고.



살림을 하다 보니……

우주의 문은 열려졌다

1월 2일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을 향해 우주 로케트를 발사했다. 이 로케트는 발사되여 34시간 만에 달 부근을 지나 지난 1월 7일 예견했던 대로 태양의 주위를 돌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인류가 오래'동안 《환상의 세계》에서만 생각해 오던 우주 려행에 대한 꿈이 실현되였다.

우주 로케트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전세계 인민들의 환호를 받아 가며 한번의 예비적 시험도 없이 단번에 발사하여 성공한 쏘베트 우주 로케트는 다계단 로케트에 의하여 발사되였다. 각종 과학 관측용 측정 기구들이 들어 있는 특별 용기로써 장비되여 있는 쏘베트 우주 로케트의 마지막 계단의 무게는 1,472 키로그람인데 이것은 길이가 약 4 메터이고 직경(돌출한 안테나를 넣지 않고)은 약 2메터나 되는 제 3 인공 위성의 무게를 훨씬 릉가하는 것이다. 크기와 무게가 그만하면 이 로케트에는 2~3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까지도 충분히 장치될 수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초조한 나머지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소위 달 로케트의 마지막 계단의 무게(26.7 키로그람)에 비하면 실로 55배나 된다.

또한 우주 로케트는 자동화된 각종 최신 측정 계기들과 기계, 그리고 로케트의 최후 계단의 비행을 관측하기 위한 무선 송신기들이 설치되여 있는데 그 무게는 361.3 키로그람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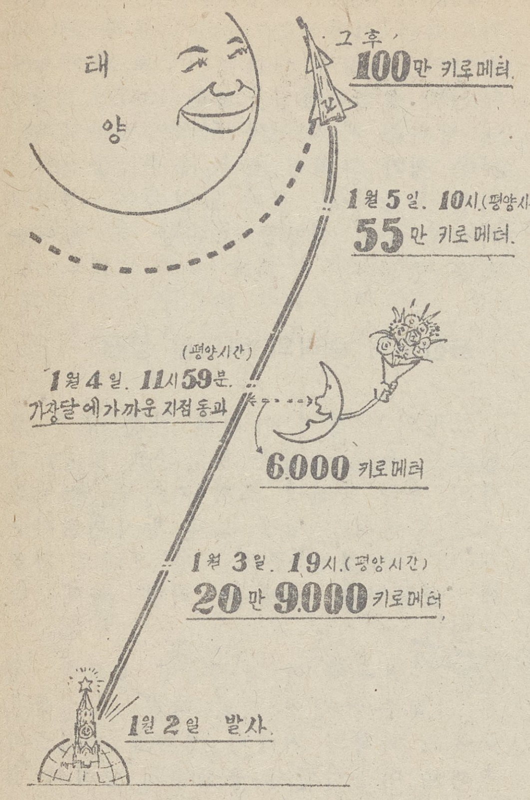
특히 인공 혜성을 조성하기 위한 특수 기구를 장비한 우주 로케트는 500 키로메터 이상에 달하는 직경의 나트룸 증기 구름에 쌓이게 되는 데 이런 장치로 하여 우리는 195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에 걸쳐 밤 하늘에서 본 꼬리 달린 별, 즉 혜성과 같은 모양의 우주 로케트를 육안이나 천문학적 관측으로 1월 3일에 관찰할 수 있었다.

우주 로케트는 어떻게 운동하였는가?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제 2 우주 속도인 초속 11.2 키로메터로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갔다(지구는 모든 것을 끌어 당기는 힘 즉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인력권내를 벗어 나자면 지구의 인력으로는 끌어 당길 수 없는 속도 즉 초속 11.2 키로메터의 속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제 2 우주 속도이다).

그리하여 우주 로케트는 달을 향하여 1월 3일 19시(평양 시간)에는 지구로부터 20만 9천 키로메터를 날았고 1월 4일 오전 11시 59분 (평양 시간)에는 자기 궤도상에서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였다. 이때 우주 로케트와 달 사이의 거리는 약 6천 키로메터였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약 40만 키로메터였다.

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날아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첫 인공 행성으로서의 원대한 로정에로 출발하면서 우주 로케트에 장치된 각종 과학 관측 기구들과 최신식 송신 기구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모르고 있던 달의 뒤'면의 비밀을 알리는 귀중한 과학 통보들을 지상 수신소들에 보낸 다음 1월 5일부터는 전원이 소모됨에 따라 지상에로의 송신을 그쳤다.



그후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쏘련 과학자들이 시초 예견했던 그대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열 번째 행성으로서 타원형 궤도에 들어 서게 되여 지구로부터 멀리 1백만 키로메터나 먼곳에 이르렀다(행성이란 태양의 주위를 도는 별을 말하며 행성의 주위를 도는 별—례하면 지구의 주위를 도는 달은 위성이다. 태양계에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아홉 개의 행성이 있는데 수성, 지구,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 처음 발사된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태양의 주위를 돌게 됨으로 태양계에 행성이 하나 더 늘어 그것이 열번째의 행성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주 로케트는 지금까지 발사된 위성의 궤도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굉장히 큰 궤도를 돌게 되는데 그의 최대 직경은 3억 4천 3백 60만 키로메터에 달하게 되며 약 15개월만에 한번씩 태양의 주위를 돌게 된다.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자기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과정에서 1월 14일에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1억 4천 6백 40만 키로메터의 지점을 통과하였고 오는 9월 초에는 태양에서 가장 먼 1억 9천 7백 20만 키로메터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 로케트는 태양의 주위를 얼마 동안 돌아 가게 될 것인가? 만약에 어떤 비상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지구의 운동이 영원하듯이 수백년, 수천년 동안 존속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 것이다. 또한 우주 로케트는 5년을 주기로 하여 한 번씩 지구에 접근할 것인데 이때 지구에서 능히 이를 관측할 수 있다.

지구에 접근할 때 우주 로케트가 지구와 충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구도 부단히 회전하고 로케트도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쏘련의 과학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 다른 천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쏘련 인민들은 1957년 10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하였고 그 후에도 련이어 두 개의 강력한 인공 위성들을 쏘아 올리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새 길을 닦아 놓았다. 이때로부터 15개월만인 새해 벽두에 쏘련은 또 세계를 그처럼 경탄시키면서 달을 향해 우주 로케트를 쏘아 올리여 첫 인공 행성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주를 정복할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는 과학 기술의 최고봉이다. 열 번째의 행성인 쏘련의 우주 로케트에는 라지오 전자 공학과 원격 조종학 그리고 야금학, 화학,

자동 공학, 열 공학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분야의 최신 기술의 성과들이 집중되여 있다. 쏘련 과학자들은 몇분 동안에 우주 속도를 낼수 있는 강력한 로케트 발동기를 만들어 냈고 자동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 십만 키로메터나 먼곳에 각이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기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기술적으로 최고도로 발전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이 우주를 려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지구의 인력 권내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탈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가진 로케트를 제작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기에 미국은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의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바 지난번 미국에서 발사한 로케트는 달의 중력 구역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지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 우주 로케트의 크기와 무게는 능히 2~3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며 지구가 끌어 당길 수 없는 속도인 초속 11.2 키로메터의 제 2 우주 속도를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다음으로 고도로 자동화된 무인 조종 장치의 로케트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로케트의 최후 계단이 궤도에 들어서는 몇분 동안에 극히 작은 착오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벌써 실패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인류가 우주 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가? 그것은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발사된 로케트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에서도 쏘련의 과학은 위대한 공적을 쌓았다.

1958년 8월에 쏘련의 과학자들은 400 키로메터 이상되는 고도에 로케트를 발사하여 그것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1957년 12월에 발사한 제 2 인공 위성에 《타이까》라는 개가 그처럼 높은 우주 공간에서 며칠 동안이나 살아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도 능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산주의 승리의 위대한 상징

쏘련의 국장과 기'발을 박은 우주 로케트는 우주 공간을 횡단하고 있다. 인류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쏘련의 우주 로케트가 달을 향해 발사되였다는 새 소식에 접한 동방은 말 그대로 환희에 들끓었고 서방은 비명 속에 잠기였다.

새해 벽두에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사회주의 진영 여러 나라 인민들은 쏘베트 과학의 거대한 성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하면서 공산주의 승리의 위대한 상징인 우주 로케트를 창조한 쏘련 인민에게 마음껏 축하를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쏘련의 우주 로케트 발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결정적 우월성을 시위하는 것이며 전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공산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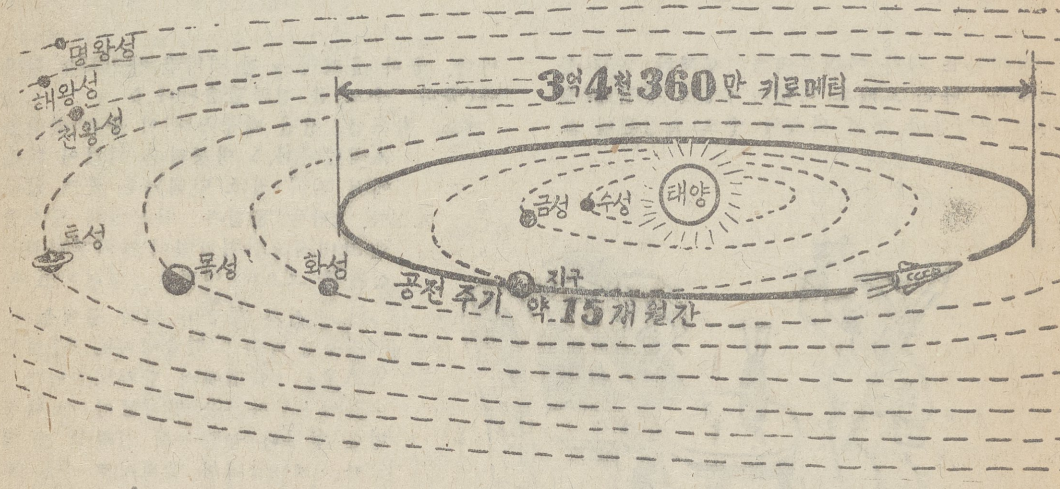
인도의 출판물은 쏘련의 로케트 과학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멀리 앞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일 미국이 감히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는 단 한 발의 로케트로 완전히 분쇄되고 말것이다》라고 했다.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은 세계 평화의 결정적 담보의 하나인 쏘련의 우주 로케트를 이처럼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맞이하였다. 그러나 백악관의 전쟁 장사치들만은 어리둥절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틀라스》 로케트 제작자인 메릭케는 쏘련의 달 로케트 발사는 《우리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이젠하워까지도 자기의 특별 성명에서 《인간에 의한 끝없는 우주 공간 정복에 있어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고 시인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제국주의 전쟁 상인들은 인류가 대담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남김 없이 증시한 쏘베트 과학의 위력한 성과 앞에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쏘베트 과학의 력사적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제아무리 미 제국주의 전쟁 상인들이 발광한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고심 참담 끝에 겨우 로케트 《아틀라스》에 의하여 발사된 작은 인공 위성의 수명이 2~3주일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또 작년 10월에 소위 달 로케트의 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처럼 이들의 과학 기술은 도저히 쏘련의 과학 기술을 따라 잡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주 로케트와 관련한 술어 해설◇

△ **우주 로케트**—다계단 로케트를 가리켜 우주 로케트라 하는데 1계단 로케트는 어느 일정한 속도 밖에 낼 수 없다. 그러나 몇 개의 로케트를 중단되지 않게 련결시켜 움직인다면 마지막 계단의 로케트는 아주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어는 지구의 인력(땅이 끌어 당기는 힘)을 벗어나 다른 별들에까지 날아갈 수 있다. 금번 쏘련의 우주 로케트가 바로 이런 다계단 로케트에 의하여 발사되였다.

△ **제 1, 제 2, 제 3 우주 속도**—땅에서 쏘아 올린 물체가 땅에서 끌어 당기는 힘 즉 지구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곧바로 우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인력에 의하여 모든 물체는 쏘아 올려서 얼마 동안이 지나면 일정한 곡선을 그리면서 땅에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쏘아 올린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중에 긋는 선은 더 곧게 된다. 이런데로부터 발사 속도가 초속 7.9 키로메터에 달했을 때에 물체는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땅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속도를 제 1 우주 속도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물체가 초속 11. 2 키로메터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면 지구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 밖으로 날아가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 (달, 금성, 화성 등)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제 2 우주 속도라 하며 쏘련의 우주 로케트가 바로 이 제 2 우주 속도로서 달 나라로 날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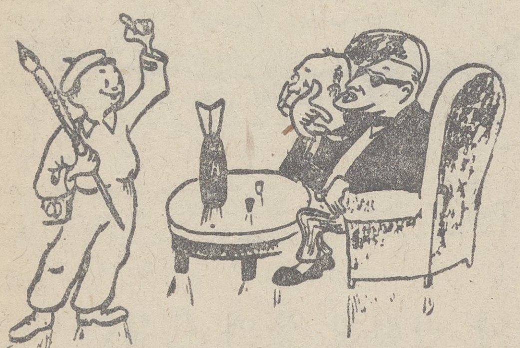
물체가 이 보다도 더 빠른 속도인 초속 16.7 키로

(28폐지에 계속)



만수의 세계 려행
미국에서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나는 로케트 비행기 《청년 생활》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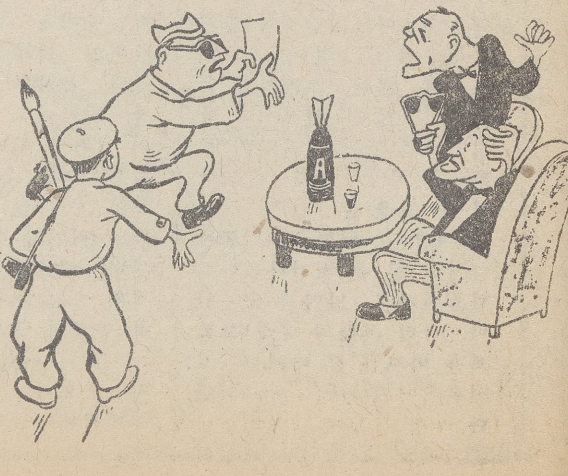
나는 먼저 이 나라의 《우두머리》인 백악관의 아이젠하워를 찾아 갔다. 내가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서니 대통령과 국무 장관 덜레스가 쑥덕 공론을 하고 있었다.

《누구시요?》《네, 나는 조선의 <청년 생활>의 <만화가> 올시다. 금번 미국을 방문하게 되여 인사차로 들렸습니다. 마침 덜레스 씨도 여기 계시여 잘 됐습니다.》

덜레스는 깜짝 놀라며 《나를 어떻게 아시요?》하고 물었다.

《조선 전쟁의 준비 상태를 검열차로 3•8 선에 개나리꽃 꺾으러 왔을 때부터 당신을 압니다.》하고 나는 야유했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국방 장관이 두 손을 추켜들고 뛰여 들어 왔다. 《대통령 각하! 망했습니다. 큐바 유격대가 전 지역을 차지하고 하바나(큐바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오, 하느님, 신년 벽두부터 이 무슨 불길한 소식입니까.》 대통령은 맥없이 의자에서 일어 섰고 덜레스는 주저 앉았다. 《미국 군함과 하느님의 병사들을 보내시요.》 한참만에 아이젠하워는 십자를 그으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녀 비서가 황급히 달려 들어왔다. 《대통령 각하! 떴습니다》. 《무엇이 떴소?》 《쏘련에서 발사했습니다.》 《뭐이! 원자탄을 발사했어!?》 대통령은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할 것 같았다. 《아닙니다. 달세계로 우주 로케트를…》

《아이쿠! 우주 로케트를 발사했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대통령과 국무 장관—두 전쟁 광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는 대통령 실을 나와 버렸다.…



나는 허위와 기만의 보도가 튀여 나오는 《뉴욕 타임스》 신문사를 찾아 갔다. 거리에서 나는 신문 배달부 청년을 만났다. 《신문 장사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19일 동안이나 뉴욕에는 신문이 없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9 개의 주요 일간 신문이 배달 일'군들의 파업으로 중단되였었지요. 신문 없는 미국, 한심한 형편이죠. 자본가 놈들은 감언리설로 우리를 꾀였으나 우리는 끝끝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나는 편집 국장실에 들어가서 몰켜 있는 신문 기자들과 인사한 후 이렇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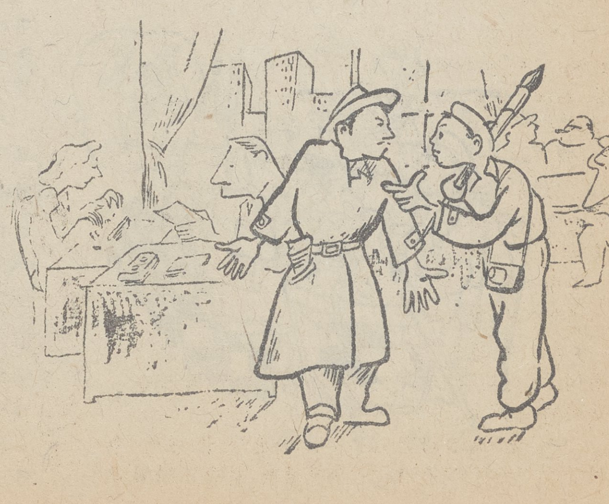
《여보쇼, 당신들은 어째 매일 거짓말을 하오? 당신들은 왜 쏘련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허위 보도를 꾸며 내며 또 당신들은 쏘련의 제 1 인공 지구 위성보다도 작은 미국의 위성을 4톤이 넘는다고 허위 선전하오?》 《할 수 있소! 먹고 살아야 할께 아니오!》 여윈 한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누가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겠소! 집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 별 수 없소.》 하고 다른 기자가 맞장구를 쳤다.

나는 거리에 나왔다. 나를 향하여 지팽이에 몸을 의지한 한 청년이 걸어왔다.

《당신은 어느 전선에 참가하였소!》

《나는 조선 전쟁에 참가하였댔소.》 머리를 숙이고 그 청년은 대답했다. 《내 이름은 죤인데 멋 모르고 놈들에게 끌려갔다 왔소. 다만 우리는 자본가 놈들의 리익을 위해서 피흘렸을 뿐이요.》



나는 죤과 함께 다방으로 들어갔다.

죤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조선 측에 포로되여 정말로 인도주의적 대우를 받았소. 나는 북조선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나는 지금 평화 옹호를 위한 투쟁을 완강히 하고

있소. 자, 우리 집으로 가봅시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그 유명한 《자유의 녀신》에게로 갔다. 《자유의 녀신》은 《미국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인도의 나라—하느님의 나라》임을 상징하며 손에 성서와 사랑의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밑에 수백명의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바로 우리들이 그 밑에 도달했을 때 백인들이 떼를 지어 흑인 로동자를 구타하고 있었다.

리유는 다만 흑인이란 것 뿐이였다. 《자유의 녀신》은 아무일도 없다는 듯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였다.

백인들이 몰켜간 후 우리는 거의 죽게된 그 흑인 청년을 태우고 어느 큰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흑인인 것을 보더니 불에 덴 사람처럼 손을 떼며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말했다.

《돈이 있습니다.》《돈이 있어도 안됩니다. 여기는 가축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람들만 치료합니다.》《아니 흑인은 사람이 아니요?》하고 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물었다. 그러자 《흑인도 사람이요!》하고 의사는 더 큰 소리로 되묻고는 꽝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창넘어 《자유의 녀신》은 멍청이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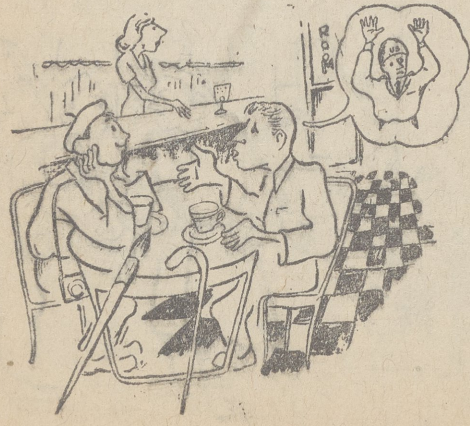
우리는 한참 앉아 있었다. 전화가 왔다. 의사는 전화를 받았다. 《의사 선생, 빨리 와 주시요,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왕진비는 낼 수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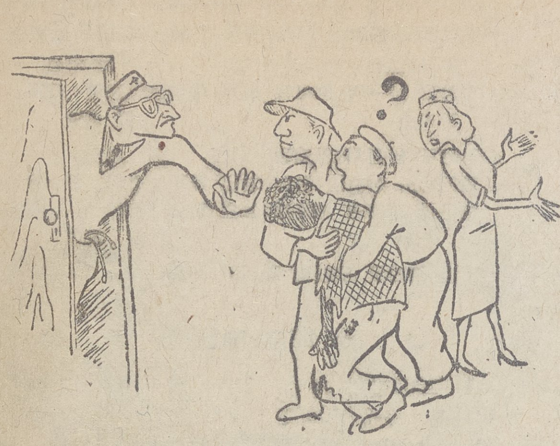


《네.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올 때까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돈을 준비하십시요.》 의사는 랭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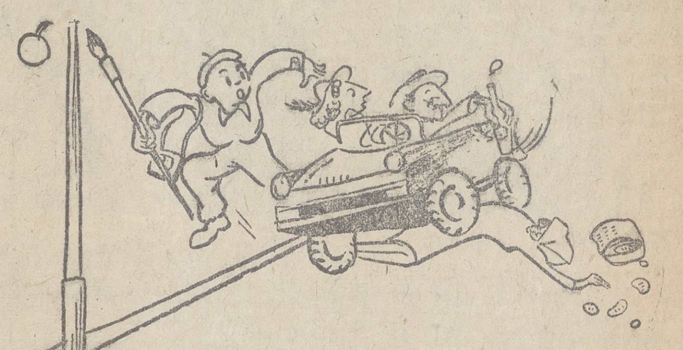
우리는 흑인을 태우고 할 수 없이 죤의 집으로 갔다. 약을 사다가 발라도 주고 처매도 주었는데 한참만에 흑인 청년은 정신이 들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에서 우리 흑인은 개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라고 씌여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도, 전차도 흑인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흑인 청년은 부두에서 일하는 로동자였다. 휴식 시간에 동무들과 함께 링칸의 동상 앞에 가 소매로 먼지를 닦아주고 있는데 몇놈의 백인들이 나타나더니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도망쳤지요, 만약 당신들만 아니였다면 나는 <자유의 녀신> 밑에서 매 맞아 죽었을 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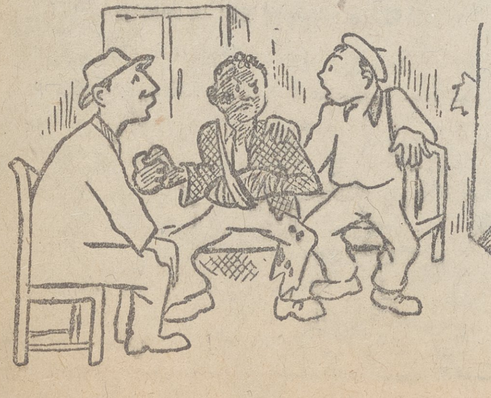
나는 혼잡한 거리에 나섰다. 시속 100 키로로 한대의 승용차가 질주해 오더니 지나가던 사람을 깔아 놓았다. 하마트면 나도 치울번 하였다. 승용차는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다만 빈 술병만이 튀여 나왔을 뿐이다. 미국은 교통 사고에서도 세계 제일이다.



영화관에 가서 나는 아연 실색하였다. 권총과 비수를 든 괴한들이 나를 노려보고 색정과 타락의 음란한 쟈즈가 자즈러지게 흘러 나왔다. 내뒤를 따라온 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한 부부가 자기 어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걸 봤습니다. 그 아이는 살인과 강도의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며 저 포스타만 봐도 떤다나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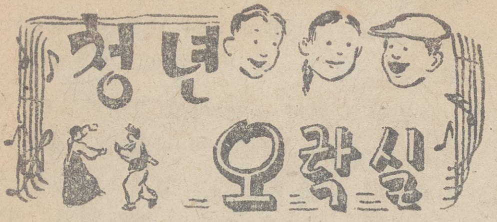
또 바로 여기로 오는 길에 있은 일인데 11번지의 백만 장자 포스터씨의 아들이 깽 소설을 읽고 그대로 했다나요. 복면을 쓰고 권총을 들고 대낮에 길'가에서 강도질을 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였답니다.》 미국은 아동 범죄 건수에 있어서도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글 박 승 수

그림 리 의 명



◇11호, 12호 현상 문제 해답◇

☆ 11호 해답 ☆

1.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70만 정보의 밭에 관개 체계를 확립하며 논 관개 면적은 새로 33만 정보를 확장하여 70만 정보에 도달시킬 것이며 22만 정보의 토지를 홍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사를 완공할 것이다.

2. (ㄱ)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농경지와 하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금 및 동을 비롯한 광석들을 광범히 개발할 것이다.

(ㄴ) 한편의 철재라도 소중히 여기며 도처에 산재되여 있는 파고철의 회수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ㄷ) 우리 대렬에는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남의 덕으로 거저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 11호 당선자 명단 ☆

함경북도 라남 영예 군인 설계 학교 조 영식
함경남도 허천군 상산리 금속 공업성 천남 광산
김 석훈
자강도 우시군 보건소 양 은숙
평안북도 정주군 오룡리 오룡 농업 협동 조합
선우 중현
평안남도 룡강군 기양 관개 건설 트레스트 제 6 건설 사업소
문 익성
평양시 남구역 평천동 기계 공업성 중앙 자재 관리소
김 승범
강원도 원산시 양지동 17반 배 순룡
황해남도 삼천군 삼성 농업 협동 조합 황 용기
판문군 평화리 판문점 농업 협동 조합
김 정현
조선 인민군 우편함 제 78133호 (정) 윤 태웅

☆ 12호 해답 ☆

1. 1961년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는 육류 40만톤, 우유 46만톤, 계란은 15억개, 양모는 700톤 이상 생산 하게 되며 인구 1인당 육류는 40 키로그람, 우유는 46 키로그람, 계란은 150개 이상 차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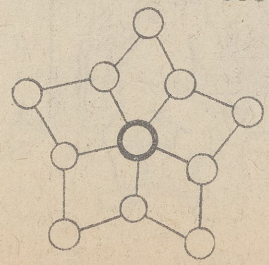
2. 농촌의 전기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전력 자원과 인민들의 앙양된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중소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 12호 당선자 명단 ☆

량강도 갑산군 내무서 김 동호
자강도 희천군 청운 선로반 함 룡운
자강도 만포군 독로강 발전소 건설 트레스트 언제 사업소
장 병남
함경남도 북청군 지만리 천봉 농업 협동 조합
송 송자
강원도 철원 광산 선광 브리가다 박 욱재
평안북도 염주군 련곡리 련곡 농업 협동 조합
리 병기
황해북도 린산군 대화리 대화 농업 협동 조합
리 선우
황해남도 배천군 류정리 신촌 농업 협동 조합
리 홍로
개성 지구 개풍군 광수 농업 협동 조합 리 교성
조선 인민군 야전 우편함 제 59863호 구월산
한 철수

(1) 다음의 그림에 있는 11 개의 동그라미에다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70의 수를 적당하게 써 넣어서 다섯 개 릉형의 네 개 동그라미의 합계 수'자가 각각 200이 되도록 하시요.

(2) 다음의 그림에 두 직선을 그어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릉형을 만드시요.





500만 톤의 알곡 생산을 위하여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하자!



…ㄴ 홍운 농업 협동 조합 내 청년들은 …크루쇼크에서 우량 종자에 대한 기술 …을 하고 있다.



문덕군 박비 농업 협동 조합 청년들은 정당 평균 13 톤의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당 500 톤 이상의 자급 비료를 반출하고 있다.

혁명을 위하여

본사에서는 김 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항일 빨찌산 대렬과 지하에서 영웅적 항일 투쟁을 전개한 젊은 혁명 투사들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그의 혁명적 품성들을 보여 주는 서적 《혁명을 위하여》를 출판하고 있는바 최근에 그 1집과 2집이 발간되였다.

제 1집에는 청년 빨찌산 지대장 박 길송 동지의 투쟁을 형상화한 《강철의 투사》와 17세의 나어린 몸으로 일제의 야수적 고문 앞에서도 끝끝내 조직의 비밀을 고수한 허 상만 동지의 고상한 혁명적 절개를 보여 주는 《영원한 생명》이 수록되여 있다.

제 2집에는 빨찌산 《녀 장군》 김 확실 동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조국의 딸》과 김 일성 원수의 직접적 지도하에서 전개된 리 제순 동지의 혁명 활동을 보여 주는 《불사조》가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혁명 선배들이 어떻게 조국을 사랑했고 원쑤를 미워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며 동시에 혁명 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준다.



민청출판사
1958. 평양